사단법인 전국신문협회 The Association of National Newspaper

대전투데이

젊은생각 · 바른신문 전화 042-538-3030 구독배달 042-538-1602 www.daejeontoday.com 제 2746호 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안정된 노후설계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함께하는 시민, 스마트한 대전 만들겠다"

허태정 유성구청장 대전시장 출마 공식 선언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53 · 사진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 · 13지방선거 대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그동안 하마평으로만 나돌던 허 청장의 대전시장 출마가 공식화됐고, 대전시장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청장은 회견문에서 "다가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에서 150만 시민 모두가 함께 웃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면서 "그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 대전으로 저의 고민과 실천의 대상을 옮겨 시민과 함께 새로운 대전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출마 배경으로 지금 대전은 동 · 서간의 격차로 도시의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고,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다."면서 "특히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 있다.이시기를 지혜롭게 대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제2의 성장 모멘텀을 맞을 수 있다. 산업화시대의 '속도와 효율'로 도시발전을 이끌어가던 낡은 리더십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저는 현재 상영중인 '1987'이라는 영화에서처럼 민주화를 위해 불꽃같은 젊은 시절을 보냈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배우면서 국정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키웠고, 현 문재인 대통령과도 정책과 비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한 뒤 "과학기술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과 중앙부처의 운영메커니즘을 배웠다.8년 동안 유성구청장을 하면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내부 혁신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삶의 질 1위도시, 도시경쟁력 상승 전국 2위 도시라는 성과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청장은 "4년마다 수장이 바뀌어 행정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을 찾지 못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대전시를 보면서 제가 겪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저의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가진 대전은 그 인적자원을 조율하고 포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대전시정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대전이 겪고 있는 동 · 서간의 격차도 서로의 장점을 교류하고 윈윈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감으로서 해결하겠다. 이를 위해 대덕특구에서 연구되어 나타나는 성과물을 상용화하는 공간으로, 제2의 대덕특구를 동부지역에 조성하겠다."면서 "환경오염, 쓰레기, 교통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를 과학적인 시각에서 해결하는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지역간에 공유와 협력이 있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성구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청소년진로진학사업 등을 대전 전체로 확대하여 교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가겠으며, 청소년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고교의무급식을 시행하겠다."면서 "젊은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스타트업 타운을 만들어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에 남아서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시민과의 소통으로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만들어 대전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어 가겠다."면서 시민참여형 시정은 저의 공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으며 이를 위해 '시민공약공모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허 청장의 대전시장 출마선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허태정 유성구청장께서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염치없는 일"이라면서 "허태정 청장은 청장 재임중 발생한 유성 노은지역 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 의혹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어 "서민들이 피땀흘려 마련한 돈을 둘러싸고 수억원의 금품이 오고간 정황에 대해, 유성구청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된 이유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지방선거중 본인 공약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조기시행'이라고 명시해놓고,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엄청난 의혹과 특혜에 대해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히라"고 말했다.

또한 "허 청장은 시장 출마 선언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으로 낱낱이 해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영달을 위해 주민들의 명령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처사는 성공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의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다중이용시설 안전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안희정 지사 "안전 상황 점검 · 대응 능력 향상 논의해야"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재난약자 밀집 수용시설 화재 대책 보고회의'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실 · 국장과 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안 지사는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명복의 뜻을 전한 뒤 "잇따르고 있는 대형 사건과 관련해 우리 도의 안전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정한기자

"선거철 공무원 정치적 중립 지켜야"

李 권한대행, 주간업무회의서 공무원의 인식 전환 강조

이재관<사진>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규제혁파를 위한 공무원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에 있어 규제혁파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규정 자체의 문제보단 전례나 관행을 답습하는 담당자의 접근방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 부분도 규제혁파의 대상이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담당자 입장에선 선례를 따르는 것이 제일 속편하겠지만, 이러면 바뀔 게 없다"며 "각 실국마다 회의체를 두고 공무원이 부담 없이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부득이 비난받거나 지적받는 경우도 있다"며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의기소침 말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최근 전국에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화재 사고에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 권한대행은 "스프링클러, 방화문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실제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병원화재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 화재발생 때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가 초기대응을 잘 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민의 신뢰를 높인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선거를 맞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종 행사를 진행할 때 이를 염두하고 선거법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정부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 수혜 확대, 조직진단 및 인력조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호기자

지난 1년 행복도시 내 업종 '음식점' 가장 크게 늘어

2016년 말 기준 5692개소 대비 약 40% 증가

지난 1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생활편의시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행복도시 내 생활밀착형 사업장 수는 7993개소로, 2016년 말 기준 5692개소 대비 약 4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1174개소) ▲부동산(697개소) ▲커피숍(207개소) ▲이 · 미용(195개소) ▲병 · 의원(187개소) ▲약국(59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 행복도시 입주민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 밀착형 편의시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시설은 ▲치과 47개소(12개 증) ▲한의원 41개소(10개 증) ▲소아청소년과 16개소(5개 증) ▲내과 14개소(4개 증) ▲이비인후과 13개소(6개 증) 등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권별로는 ▲1생활권(고운동~어진동) 4692개소 ▲2생활권(다정동~나성동) 2246개소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1055개소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새롬동(2-2생활권, 570개 증), 보람동(3-2생활권, 432개 증), 나성동(2-4생활권, 306개 증)을 중심으로 사업장 수가 크게 증가했다.

앞으로도 2019년 말 도담동(1-4생활권)에 500병상 규모인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소담동(3-3생활권)에 250병상 규모의 외과전문병원이 개원함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크게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어진동(1-5생활권)에 비즈니스호텔(2019년), 대평동(3-1생활권)에 대형유통점인 코스트코(2018년)가 각각 준공되면 주민 생활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태 행복청 고객만족지원팀장은 "행복도시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편의시설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금융센터 · 국립합창단 등 10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비리' 공직 유관단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제금융센터, 국립합창단 등 10개 기타 공직 유관단체를 채용비리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재부, 행안부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정부합동 점검체계 구축에 따라 기재부(330개 공공기관), 행안부(824개 지방공공기관) 점검에서 제외된 기타 공직 유관단체 272개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같은 기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 조사 결과 200개 단체에서 모두 989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특히 부정청탁 ·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기관은 국제금융센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합창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군인공제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 권익위는 또 채용업무 처리 과정 중에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 등이 적발돼 채용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 요구 조치했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자는 12명으로 현직자는 7명이며, 징계 대상자는 모두 70명이다.

권익위는 우선 수사의뢰 및 징계대상자 77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수사 결과 기소될 경우 공직에서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정합격자에 대한 면직도 추진된다. 수사의뢰된 10건과 관련해 부정합격자로 추정되는 현직 직원은 잠정 29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를 통해 부정청탁 존재여부와 금품수수 등을 확인 후 최종 확정하고, 수사결과 본인 또는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제 ·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가 파면 · 해임 ·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관련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추진한다. 이들 역시 수사결과 본인이나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제재를 받거나 퇴출된다.

한편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채용규정 마련과 보완 여부, 감독기관의 관리 및 감독 현황 등을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해 기관별 적극적 개선 노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실제 특별점검결과 전체 위반행위의 23.1%(231건)는 '규정미비'에 해당됐다.

또 권익위는 온 · 오프라인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채용비리 적발 등 공익기여가 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신고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기자

유성구의회 민태권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태권 의장이 29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유성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18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특별회비는 각종 재난구호활동과 사회봉사, 저소득층 구호사업 등에 사용되며, 유성구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부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 "바른정당과 통합 적극 지지"

2018 지방선거 통합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 결의

국민의당 대전시당 청년위원 일동은 29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당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만들어준 다당제를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정당으로 발돋음하여 수권정당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할 때"라며 "이를위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이미 확인된 당원들의 요구이며, 시대정신으로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사회적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확대되기는 커녕 무책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굴욕적인 북한외교로 전국민들의 축제의 마당이 되어야 할 '평창 올림픽'은 북한의 선전 마당으로 전락되었고, 우리 2030 세대에게는 상실감만 키우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중도세력과 개혁적 보수세력이 뭉쳐 제3의 새로운 정당의 탄생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롭게 탄생할 통합신당은 양극단 세력의 농단으로 뿔뿔히 갈라진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합리적인 정책대안 정당이 될 것"이라면서 "민생을 우선 하면서도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출산, 보육, 주거와 교육을 책임지는 복지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 대전지역 국민의당 청년위원 일동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적극 지지하면서 2월4일 전당대회 투표 참여는 물론, 다가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홍재표 의원, 농업보조금 철저 관리 · 점검 촉구

제301회 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충남도의회 홍재표<사진>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인 제301회 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농업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농업과 농촌에서 깊어가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 의원은 농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기준 미달과 부정 업체들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촘촘한 점검을 해야한다"며 "보조금 지원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농촌의 양극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이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실질적 농업생산 기반이라 볼 수 있는 영세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소규모농가들의 지원책으로 농작업 대행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며 "가뭄 시 대농가 위주로 지원하는 대형관정사업을 중 · 소형 관정개발을 통한 소규모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된 영세농가들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그분들의 삶 전체로도 볼 수 있다"며 "도정을 수행할 때 이들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모범운전자 연합회 활동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9일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운전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도지사는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 · 감독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은 자동차 운전직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분들이다"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정복기자

"대전디자인센터 민간의 창의성이 우선 되도록"

이상민 의원, 디자인센터 성공추진 위한 정책간담회 참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9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디자인센터 성공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가하여 대전, 충청지역 디자인 전문가들과 열띤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대전은 45개 연구소와 1300개의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석, 박사급 인구가 2만 명에 달하는 등 연구, 개발 인프라가 집적되어있는 무궁무진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자원과 과학기술을 디자인산업에 접목해 지역산업 역량과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들을 강조하며 "디자인센터를 통해서 대전을 디자인 사업을 발전시키는 전초기지이자 대한민국 디자인의 요람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며 "대전디자인센터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고 대전디자인센터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내다보았다.

이 의원은 "디자인센터는 매우 긴요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난항을 많이 겪었다. 힘을 같이 모은 덕분에 중앙정부로부터 디자인센터 건립을 확정 받았지만 다른 시. 도 와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필연코 실패할 것이다." 라며 "민간이 앞장서서 더 정밀하게 지혜를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서 노력해야한다." 라며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전시가 계획수립 후 지난 2년 동안 국비 확보가 난항을 겪으며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예산실무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에게 예산반영 필요성을 주장하며 예산반영과 건립을 이끌어냈었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대전디자인센터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원휘 대전시의회부의장, 김동섭, 정기현 시의원, 유성구의회 이금선, 하경옥 의원, 김정흠 4차산업혁명운영과장을 비롯해 서영석 대전디자인센터 추진위원, 김관기 대전디자인연대 사무처장, 이한성 한밭대 교수, 유정미 대전대 교수, 이상원 대전디자인기업협회 회장 등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신용현 …고무열 위원장 당원정지

22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에 신용현 국회의원을 임명하였다.

과학자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후 최고위원과 전국여성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의당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11월에는 대전 유성구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어 유성의 현안 사업 및 예산확보와 함께 대전 4차산업혁명 특화도시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다. 신용원 의원이 수석대변인에 임명되기 이전에는 김세환 서구갑 위원장이 15일에 수석부대변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김세환 서구갑위원장은 이미 국민의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대전광역시당에서는 지역위원장과 더불어 대변인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은 28일 당무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고의적,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집단적인 해당행위를 지속하는 당원들 179명에 대한 '2년 동안 당원권 정지'를 결정하였다.대전지역에서는 유성구갑 지역위원장인 고무열 위원장을 당원정지 시킴으로써, 유성구갑 지역위원회는 사고지역위원회로 판정이 되었다.

대전시의회 최선희 의원, 유아교육발전 공로 감사패 받아

대전광역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 · 취임식

대전시의회 최선희 의원(비례, 자유한국당)은 29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 · 취임식에서 대전시 유아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선희 의원은 "유아교육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관련 종사자들께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대전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이 날 감사패를 전달한 연합회 최병주 회장은 "최선희 의원께서는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다년간 활동하셨으며, 의정활동 내내 우리 대전시의 유아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셨다. 향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 날 이 · 취임식에서는, 임기가 끝난 최병주 회장(노랑풍차유치원장)에 이어 세명유치원 이영화 원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김정환기자

충남도의회 행자위, KBS 내포방송국 유치 총력 기울여야

KBS 내포방송국 유치와 SNS 통한 도정홍보 대책 등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열린 공보관실, 충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KBS 내포방송국 유치와 SNS를 통한 도정홍보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우리 도민들도 수신료를 동등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도민들과 함께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KBS 사장이 해임되면서 내포 KBS방송국 유치에 대한 기류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포에는 방송국 부지도 이미 마련됐다. 방송국이 지어질 경우 내포신도시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지난해 최고 흥행영화 범죄도시 엔딩 크레디트를 보면, 실질적인 촬영 장소는 천안이 많았다"며 "그러나 천안에 대한 이렇다 할 영화 홍보는 부족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충남도의 국비 확보 성적이 매우 높다"며 "도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SNS 등을 통한 홍보활동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그동안 도정의 새로운 정책의 경우 대부분 내부관계인끼리만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향후 도민들에게 도정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 도정의 정책들을 도민께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복기자

블록체인기술 선도위해 관련 법령 재 ·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 1차 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단장 오세정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4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1차회의를 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1차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의 재개정과 예산확보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블록체인학회와 협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 학계와 기업,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해 활동할 것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번 1차회의에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지원과 적절한 규제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의 자금결재법과 미국 뉴욕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상화폐 조례 등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전자금융결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결제법, 자본시장법, 범죄수익은닉처벌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당 암호화폐특별대책단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자율권보장과 함께 불법 · 투기 행위 감시강화와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양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김정환기자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소상공인 지원 확대

KTX 경강선 최대 50% 할인…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8개 IC 통행료 면제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패럴림픽이 폐막되는 3월 18일까지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한다.

올림픽 기간 행사지역 8개 IC 통행료 면제와 함께 KTX 경강선 할인(2월, 4인 5만원 티켓 · 좌석별 최대 50%)을 실시한다.

평창 올림픽 기간(2.9~25) 중에 있는 올해 설 명절(2.15~18)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특징을 고려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는 모두가 올림픽 열기를 함께 즐기고 명절 온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발굴했다.

올림픽 계기 강원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평창 여행의 달'을 운영한다.

올림픽 기간(2.9~25./3.9~18.) 행사지역 8개 IC(면온 · 평창 · 속사 · 진부 · 대관령 · 강릉 · 남강릉 · 북강릉) 통행료 면제와 KTX 경강선 할인은 국무회의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충청지역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줍니다"

꿈나무장학회 유미자 회장

"우리 충청지역에는 많은 인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뜻 있는 분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을 주고자 장학회를 설립해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전 · 충남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온 '꿈나무장학회' 유미자(55) 회장은 대전 토박이로 봉사를 천직(天職)으로 생각하며 지역 봉사활동에 항상 앞장서 왔다.

'꿈나무 장학회'는 지난 2016년 설립돼 지역 어려운 가정형편의 학생들에게 버팀목이 돼 왔다. 이 장학회는 처음에는 지역의 뜻 있는 인사분들 몇몇이 동참했다. 그런데 지금은 후원자 즉 회원이 5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회원들은 모두 평범한 대전시민들이다. 회원 자격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순수히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유 회장은 "회원들 모두 순수한 마음으로 장학회에 가입한 분들입니다. 우리 장학회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게 아니거든요. 장차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회원들 모두 조금이나마 지속적인 후원을 하고 실어서 결성된 단체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꿈나무 장학회에서는 매달 충청지역 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인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곳에서 장학생을 선정하는 방식은 '형편은 어렵지만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 가운데 추천을 받아 이뤄진다. 장학회 내부에서 추천하면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여러 기관에 의견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회원들의 바람 때문이다.

꿈나무 장학회의 활동은 설립 이후부터 계속해 이어졌다.

꿈나무 장학회는 지난해 1월 17일엔 유성고등학교와 학업에 충실한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학기금 협약 체결식을 가졌고, 같은해 7월18일에는 유성여자고등학교에 장학금 200만원을 후원 했다.

또 꿈나무장학회는 지난해 5월 19일 충남 청양군 정산중학교와 장학체결을 맺고 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장학체결식에는 꿈나무장학회원 (정달수35회 · 청양군청) (김명순35회 · 삼성생명)회원의 모교이어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 귀한 시간이었다.

지난해 7월 17일엔 꿈나무장학회는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외삼중학교와 장학체결식을 맺었다. 특히 외삼중학교 장학 체결식은 한전 원자력에서 특별장학금을 지원했다. 또한, 장학체결식에 동참한 외삼중학교 배영주 운영위원장, 양미순 학부모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또한, 지난해 7월 10일엔 충남 계룡시 두마면 소재 계룡고등학교와 장학체결식을 가졌다. 우수한 학생을 발굴육성 지원하는 꿈나무장학회는 특별행사로 류기완 대외협력위원장의 도서지원금도 함께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29일엔 유성고등학교에서 안면비대증로 시력을 잃어가는 학생에게 수술비를 지원했다. 이날 수술비지원에는 충남대 육동일교수 국민은행 크로바지점 조도형 지점장등의 후원으로 이뤄져 서울 삼성병원에 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13일엔 유성구 장대동 소제 장대중학교에서 2학기 학부모 설명회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특히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 참여한 충남대 육동일 교수 외 임원진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지난 2016년 11월 10일엔 꿈나무장학회 유미자 회장 외 20여명이 대덕고등학교와 장학 체결을 맺었다. 꿈나무장학회는 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매월 20만원씩 1년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유성의 발전이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꿈나무장학회는 이러한 봉사활동 이외에도 회원들과의 돈독한 단합을 위해서 다양한 연수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17일엔 꿈나무장학회는

꿈나무장학회는 지난해 9월 19일 대전 동구의 대표 복지브랜드인 천사의 손길 행복에 추석을 맞아 성금 2백만원도 전달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봉사활동이 지역내 전해지면서 지난해 12월 5일 유성구청에서 5일 봉사상을 꿈나무장학회 박정숙 부회장과 장은익 감사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꿈나무장학회는 이러한 선행들이 알려지면서 최근엔 세종지역에 꿈나무장학회 설립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인 실무절차에 들어갔다. 유 회장은 "세종지역 일부 주민들이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꿈나무장학회 활동을 알게 되면서 동참의미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 중부화력발전(감사 김선우)의 초대로 중부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전기생성 원리와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어 우리나라 산업과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을 견학했다.

꿈나무장학회는 국가부흥과 국민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전기는 수입석탄으로 만들어지고 있기에 전기절약운동에 동참을 부탁했다.

유 회장은 "대전 · 충남지역에 많은 장학회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순수한 봉사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 장학회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지역의 뜻있는 분들과 함께 지역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e편한세상 둔산’ 주말 주택전시관 2만2천명 인파

한파 녹이는 분양 열기, 방문객 대부분 청약상담 받고 돌아가

대전 중심 둔산지구 풍부한 생활인프라 공유… 실용적 상품설계

둔산 생활의 편리한 인프라에 e편한세상이 프리미엄을 더합니다
e편한세상 둔산
총 776세대 중 일반분양 231세대 (전용 72㎡, 84㎡)
1월 26일 OPEN 중
042) 522-5522

대전 중심입지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탄방동2구역 재건축 단지로 조성되는 ‘e편한세상 둔산’ 주택전시관에는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도 주말 내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고려개발 · 대림산업이 지난 26일(금) 개관한 ‘e편한세상 둔산’ 주택전시관에는 주말 3일 동안 총 2만20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청약열기를 짐작케 했다.

이른 아침부터 주택전시관을 찾은 방문객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내부에는 단지와 입지를 살피려는 수요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상담석은 장시간 만석이었으며, 대기석에도 상담을 기다리는 이들로 붐볐다.

주택전시관을 둘러본 방문객들은 편리한 생활환경, 교통 등 입지에 대해 호평하며 청약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강모씨(43세)는 “e편한세상 둔산은 대전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중심입지에 위치해 있어 분양 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아파트다”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할 것 같고, 공원도 가까워 청약을 넣을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e편한세상 둔산이 들어서는 둔산지구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거주민들의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단지 인근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세이브존,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행정타운 내 정부대전청사, 시청,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등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전지하철 1호선 용문역과 탄방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단지로 지하철을 이용해 정부청사역까지 약 6분, 대전역까지 약 1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남세종IC와 유성IC를 통해 세종시로의 접근이 편리하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전 주택형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데다 e편한세상만의 단열설계 등 실용적인 설계가 적용된 점도 수요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씨(33세)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오래돼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에너지 절감 기술들이 적용된다고 해서 마음에 든다”며 “단지 내 조경공간이 많고 피트니스센터, 카페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에 좋은 아파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단지는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 없는 단열라인이 적용돼 결로발생을 최소화한 단열설계기술을 적용했다. 또 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거실, 주방에는 침실보다 2배 두꺼운 60mm 층간소음 저감 바닥재를 적용해 소음 및 난방에너지를 저감시켰다.

또한 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 운동공간, 마을텃밭 등 다양한 조경공간을 조성해 주거쾌적성을 높였으며, 피트니스센터, 라운지카페,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관계자는 “e편한세상 둔산은 대전 핵심입지에 위치해 교통, 편의, 교육 등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데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인 만큼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주택전시관 방문객 대부분이 청약상담을 받고 돌아갔을 정도로 관심이 높아서 성공적인 청약결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 둔산은 지하 2층. 지상 10~22층, 10개동, 전용면적 59~103㎡, 총 776가구 규모로 이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72㎡, 84㎡ 23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면적 △72㎡ 192가구 △84㎡A 20가구 △84㎡B 19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이뤄져 있다.

청약일정은 오는 1월 30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월 31일(수) 1순위, 2월 1일(목)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1단지를 2월 7일(수), 2단지를 8일(목)에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20일(화)~22일(목) 3일간 진행된다.

주택전시관은 대전 서구 둔산동 140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대전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와 인접하다. 입주는 2020년 5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42-522-5522>

서산시 농특산물 온라인 특판전 '인기'

우체국쇼핑 · 지마켓 · 옥션 · 구매 가능 다음달 25일까지… 5000원 할인쿠폰도 지급

서산시가 대형 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가 입소문을 타고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서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다음달 9일까지 한국우편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우체국쇼핑, 지마켓, 옥션 등에서 온라인 특판 행사를 진행 중이다.

특판 행사 판매 품목은 생강한과, 사과, 한우, 조청 등 설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품 위주로 구성됐으며,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별 최대 5000원의 할인쿠폰도 발급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시장이나 마켓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수한 서산 농특산물을 가정에서 손쉽게 주문하고 직접 받아볼 수 있다.

올해 시는 설 명절 특판전을 시작으로 제철 농산물 주 출하 시기는 물론, 추석절, 김장철 등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로 온라인 소비자들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산뜨레 홈페이지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결제 가능한 쇼핑몰 형태로의 개선을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진행 중에 있다.

정성룡 서산시 농정과장은 "온라인마켓을 통한 직거래는 판매촉진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구매 편리성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된다." 며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를 더욱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감자, 마늘 등을 시작으로 9월 추석명절, 11월 김장철까지 온라인 특판전을 개최해 총 5억 1천여만 원의 판매성과를 올렸다.

서산 농특산물의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우체국쇼핑, 지마켓, 옥션에서나, 검색창에 '서산뜨레'를 입력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산=김정한기자

당진시 농기계 임대실적 해마다 증가

농업기술센터,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 연간 약20억원

사지 않고 빌리는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에서도 농기계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당진의 경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 농기계를 빌려 쓰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센터에 따르면 2015년 농기계 임대실적은 2015년 5235대를 기록한 이후 2016년 6615대, 2017년 7948대로 해마다 증가했다. 증가폭은 2015년은 2014년에 비해 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전년대비 26%와 27%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가 산출한 농기계 구입비용 대체효과(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는 연간 약 20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농기계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농기계 구입비용이 부담이 되는 반면 특정 작물에만 활용할 수 있거나 특정 영농시기에만 필요한 농기계도 많기 때문이다.

당진의 경우에는 센터 본소에 65종 427대, 남부지소 40종 252대, 북부지소 39종 205대의 다양한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세 곳에서 모두 농기계를 빌릴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도 임대수요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당진=최근수기자

친환경농산물생산판매 100억 돌파

청양군, 신규품목을 지속적 발굴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유기농) 생산 및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친환경농산물 판매액이 총 10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군은 대표 농 · 특산물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고 표고버섯, 블루베리, 고사리 등 신규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한 결과로 분석했다.

청양군의 친환경인증 면적은 862ha(도내 3위)로 친환경육성정책에 힘입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밤, 구기자, 벼 등의 품목이 규모화를 이루고 있고 블루베리 표고, 고사리, 상추 등 작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친환경농업을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농가소득을 주도하고 있으며, 충남도가 추진하는 생태 · 경관 · 식량자립의 공익형직불제 시범사업을 2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화성면 화암리 친환경벼재배단지에서는 멸종위기 2급 금개구리가 발견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구축했다.

세종시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도기업(수출액 1,000만불 이상)으로 육성하는 '2018년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전년도 직수출 금액이 500만불 이상(혁신형 기업은 직수출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4년간 중기부 해외마케팅(4년간 2억원 이내), R&D(2년간 6억원), 세종시 지역자율지원프로그램(1년간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는 중기부와 함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 · 중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충남중기청 내 대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2월 1일에는 세종시청 5층 여민실에서 '2018년 세종시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세종시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전산등록* 후 신청서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www.sejong.go.kr), 중소벤처기업부(www. mss.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을 통해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충남 아산시가 올해부터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수년간 논 면적과 쌀 생산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의 공급이 과잉되어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충청남도는 '17년도 쌀변동직불금 대상 농지에 올해 발작물을 재배하면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ha당 200만원만큼 기반정비 또는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 아산시 벼 재배 감축 목표는 612ha로 총 24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며, 상한면적은 제한이 없다.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5종)은 수급불안이 우려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료는 400만원/ha, 두류 280만원/ha, 일반작물과 풋거름작물은 340만원/ha가 지원된다.

사업신청은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서장원 농정과장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통해 쌀 수급이 안정화되고 밭작물 자급률도 향상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공주시 공주알밤 가공 상품 활성화 시식품평회 열려

지역특산물 알밤가공상품의 판로개척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산물인 알밤가공상품의 판로개척을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해 사단법인 MD협회와 함께 공주밤을 이용한 가공 상품의 시식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날 품평회는 공주알밤찹쌀떡을 비롯해 공주밤 가공 상품 20종이 출품됐으며, 마케팅 전문가인 각 유통채널의 MD(Merchandiser, 구매전문가)들을 초청해 시식행사와 더불어 구매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GS홈쇼핑, 롯데제과, 홈플러스, 쿠팡,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국내 유통망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특히 수출구매상담을 위해 전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이베이도 참여해 공주밤 가공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품평회를 시작으로 공주밤 가공상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환 농촌진흥과장은 "이번 품평회에 참석한 MD들의 자문을 통해 추가적인 상품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관내 밤가공 상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 운영 중

아산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5~10억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청구대상이며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된다. 다만,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및 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 되었는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한다.

아산시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총75억 원 예산을 투입해 도시계획시설부지 15,711㎡를 매수했으며, 올해도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시행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매수청구제도에 대한 세부문의는 아산시 도시계획과(041-540-2940)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역사 · 문화 · 관광 3박자 갖춘 버스투어 '인기'

홍성군, 2017년 6604명 버스투어 실시로 전년 대비 1519명 관광객 증대

홍성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생동감 넘치는 해설과 홍성군만의 특색 있는 버스투어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성 버스투어는 올해도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서해금빛열차를 타고 홍성역에서 하차한 후, 홍성군이 지원하는 '氣찬 홍성 해피투어 버스'를 타고 홍성 주요 관광지인 홍주성역사관, 김좌진 장군생가, 남당항, 속동전망대, 그림이 있는 정원, 광천토굴새우젓 전통시장 등을 관광하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관광만 하는 투어와 달리 버스에 동승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서 홍성의 문화와 역사를 접목한 스토리텔링 해설을 들으며 우리의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전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지난해 서해금빛열차 이용객은 4010명(전년도 3662명), 氣찬 해피투어 이용객은 2594명(전년도 1423명)으로 전년대비 1519명이 더 늘어난 6604명의 관광객이 투어를 즐겼음을 밝히며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혼자 또는 5인 이하의 인원으로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문화관광해설이 있는 주말 시티투어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용봉산, 오서산 2개소에도 주말동안 문화관광해설사를 확대 배치하여 방문객들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생동감 있는 안내를 받으며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2018년 홍주지명 탄생 천년의 해가 된 만큼 올해에는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홍성에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홍성=김정한기자

농어촌公 친환경 수질개선기술 인증 획득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원장 장중석)과 수생태복원㈜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수질정화 기술이 농식품부로부터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에 신기술로 인증 받은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한 바이오스톤볼 수처리 기술'은 직경 10cm 크기의 공 모양으로 만든 수처리 담체 '바이오스톤볼'을 이용해 저수지 등으로 유입되는 물의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이다.

'바이오스톤 볼'은 자갈을 친환경에폭시 수지로 접합한 후 수처리에 유용한 미생물을 코팅해 만들어진다. 친환경적이며, 운영 초기 미생물 안정화 및 안정적인 수처리 효율 확보에 걸리는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특히, 바이오스톤 볼은 다공성 세라믹 등 기존의 다른 수처리 담체의 문제점인 막힘 현상(폐색, 閉塞)을 개선하였고, 슬러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또한, 바이오스톤 볼을 이용한 수질개선 기술은 기존 인공습지를 활용한 수질개선기술에 비해 소요 면적은 1/50~1/100, 체류시간은 1/16~1/32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장점이 많아 향후 인공습지 기술의 대체 및 유기물 처리 효율 제고를 위한 기존 인공습지 후처리 시설 등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농어촌연구원 장중석 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수처리 기술은 다양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해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개선은 물론,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사는 연간 2.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수처리 시장에도 국내 중소기업과 동반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산림청, 근로문화 혁신 프로젝트

‘지우-잡, 나는 리더다’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9일 근로문화를 혁신하고 능률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우-잡, 나는 리더다’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나는 리더다'는 '리더'가 주도적으로 '근무혁신'을 이끈다는 의미로, 간부들(청·차장, 각 국장)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실천 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개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청·차장을 비롯한 각 국장들은 ▲행사 참여시 수행인원 최소화, 결재 대기 시간 10분 이내로 단축(김재현 산림청장) ▲회의는 1시간 내 끝내기(류광수 산림청 차장) ▲말보다는 실천, 말하기보다는 경청(박종호 기획조정관) ▲구두보고를 원칙, 서면보고는 1장으로 최소화(김용관 국제산림협력관) ▲긴급 재난 외 SNS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 ▲국회 회의 참석시 담당 사무관 1인만 동행(최병암 산림복지국장) ▲인사말씀자료는 핵심메모 1장으로(이미라 산림보호국장) 등을 선언서에 작성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불필요한 일 버리기 실천약속은 소수의 인원에서 시작했지만 전 직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업무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원들 개개인이 '일과 삶의 균형(워크-라이프 밸런스·Work-Life Balance)'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근무혁신을 위한 첫 단추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하자고 했지만 실무직원들은 또 하나의 일만 생기고 일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선뜻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부터, 국장급 이상 간부부터 실천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라며 “이번 행사가 단초가 되어 근무 혁신을 이루고 효율적인 업무 체계가 정착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7·9급 출신 공무원, 실국장 승진기회 늘어난다

인사혁신처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 도입

정부가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해 실력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7·9급 출신의 실·국장 승진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업무보고의 세부 내용이기도 하다.

인사처는 주요 추진과제로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육성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사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사람 중심 경제·정부혁신을 뒷받침하는 인재 등용

근로감독·집배원·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충원 인력은 경찰 4193명, 해경 915명, 소방 4821명 등 특정직만 3만 3202명이다.

또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기로 했다. 5급 행정직군의 경우 60일, 5급 기술직군은 95일, 7급 공채는 60일, 9급 공채는 66일 단축할 계획이다.

배경 블라인드 채용(직무역량 중심)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 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발표해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을 위한 원칙을 확립하고 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균형인사 연차 보고서'도 발간한다.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 공직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확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인 승진관행을 실적과 능력에 따라 가능하도록 하는 '직무역량 중심 속진임용제(Fast-Track)'를 도입한다. 법령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단 소요기간은 9년이다.

하지만 작년 6월 기준으로 5급 공무원 중 9급으로 들어온 사람의 평균 소요기간은 25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9급으로 들어와 6급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었다.

5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3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사람의 비중은 40.4%이지만 7급으로 들어온 공무원 중에서는 7.0%, 9급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0.6%에 불과했다.

속진임용제는 직위공모 방식 도입과 공개경쟁 승진,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직위공모 방식은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공개경쟁 승진은 인사처 주관으로 부처 구분 없이 승진지원자를 대상으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직무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진임용시키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처는 속진임용제 도입을 위해 공무원노조, 부처, 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고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인재추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한다.

◇ 공직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이동하기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직무를 피하거나 인사권자가 전보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이를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하고 징계기준에 이해충돌로 인한 비위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엄정 징계한다.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등 국민 신뢰가 낮은 분야는 규모가 작아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경비원·주차관리원 등 생계를 위해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상사'보다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충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민 편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의 경우 보고·의견수렴 등 필수절차를 거쳤다면 면책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계획이다.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 초과근무를 한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성보호시간과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경력인정범위도 확대한다.

현장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중 사망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실화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올 한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국가혁신을 선도하는 공무원 양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청양군,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취약계층 의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충남 도내 4개 지방의료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검진 및 수술비 지원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한다.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자 중 65세 이상자와 1~3급 장애인이 포함된다.

검진 및 수술비 지원항목은 척추, 어깨질환 및 인공관절, 전립선비대증, 심혈관중재수술 등으로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에서 질환별로 나뉘어 실시한다.

건강보험납부 하위 20%이하자는 직장보험 4만4010원, 지역보험 1만7450원까지 납부하는 세대로 이에 해당되는 세대 중 대상자가 관련 질환으로 인한 진료 및 수술시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청양군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 940-4540으로 연락하면 된다.

청양=정상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주거환경개선 사업 희망자 모집

청양군,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2월 2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올해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총 7800만원(도비 2340만원, 군비 5460만원)으로, 가구당 600만원의 건축비를 들여 현금지급이 아닌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준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고령자(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80세 이상의 자립생활 가능자를 우선 지원하고 장애인(1~6급 등록) 가구는 1~2등급 지체·뇌병변·시각 등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가구는 자가주택·임차주택 모두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김종섭 건설도시과장은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힘든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입문과정’ 수강생 모집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 중부권 최초

우송정보대학 평생교육원이 중부권 최초로 기관사의 꿈을 실현시켜 줄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입문과정”을 3월 13일(화) 개강한다.

그동안 대전/세종/충청지역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 준비 교육과정이 없어 서울까지 원정교육을 받으러 다녀야 했으나 본 과정 개설로 큰 불편을 덜게 되었다.

이 과정은 매주 2회(화, 수) 각 3시간씩(18:00~21:00) 10주간 총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려운 경기현실을 감안하여 2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하였다. 또한 강의는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송정보대학 철도교통학부의 교수진으로 구성하여 현장경험과 이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교육내용은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전문교육기관 입교시험 및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대비하여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운전규칙, 도시철도 운전규칙을 집중 강의하게 되며, 우송정보대학 서캠퍼스 평생교육원(우송관, W7 건물) 415호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lifelong.wsi.ac.kr/main/index.jsp)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대전상의-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委 공동 조사

기업, 구직자와 미스매치 ‘체감’

대전상공회의소가 대전·세종지역 소재 9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채용 관행 및 인재 선호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하반기 기업에 필요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고용지원 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상공회의소(회장 박희원)와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박희원)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구직자 선발요건… '직무경험' 갖추고 '책임감'있는 인재 선호

대전·세종지역 기업체는 채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발요건으로 '인턴 등 직무경험(36.6%)'을 꼽았으며, '자격증(20.0%)', '학력(9.3%)' 등 요건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어학점수(0.5%), '공모전 입상(0.6%)', '사회봉사(1.0%)'에 대한 응답률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 시 구직자가 갖춰야할 기본소양은 '책임감(39.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밖에 '적응력(18.4%)', '협조성(12.3%)'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방법으로는 '취업포털(26.1%)'과 '고용관련 기관(25.6%)'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 채용과 비공개 채용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80.8%의 기업은 공개채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추천으로 검증된 인재를 뽑거나, 급하게 채용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19.2%의 기업은 비공개 채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신입직원 평균연봉 '2,000~2,400만원'대… '보상의 미스매치' 발생 원인

대전·세종지역 기업들이 생각하는 구직자 취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임금(31.7%)'을 꼽았으며, '적성(15.1%)', '근무시간(13.5%)' 등 답변이 뒤를 이었다.

신입직원의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3%의 기업이 '2천~2천4백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2천4백만원~3천만원'은 25.5%, '2천만원 미만'은 19.0%로 집계됐다. 반면 '3천5백만원 이상'은 1.9%에 불과했다.

기업과 구직자 간 인재 채용 시 겪는 미스매치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기술을 갖춘 구직자가 부족한 데에서 발생하는 '숙련의 미스매치(30.4%)'와 급여, 인센티브, 복지 등 구직자와 기업 간 노동의 대가인 보상 차이에서 발생하는 '보상의 미스매치(24.9%)' 등을 주로 답했다.

송병배기자

아산교육지원청, 미래 인재 키우는 ‘아산 글놀이학교’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문학의 고향인 아산은 예로부터 충절과 청렴한 삶을 실천한 많은 위인을 배출한 고장으로, 아산의 모든 학교에서는 아산의 얼을 계승한 인문학 소양을 갖춘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꿈과 끼를 표현하는 표현활동에는 매우 적극적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는 등의 사고활동은 회피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경청하고 토론하며 지성과 감성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아산 글놀이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아산 글놀이학교는 인문소양 능력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펼치는 균형잡힌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와 사유, 글쓰기, 토론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 놀 듯이, 우리 아산의 학생들이 다양한 글을 재미있게 읽고 나누며, 글 속에서 맘껏 뛰어 놀며, 얼을 말과 글로 다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글놀이학교를 계획했다.

학교급별 마중물 프로그램은 학교급의 특성을 살려 '온책읽기 연계 글쓰기 교실' 지역작가와 연계한 '동네BOOK 글놀이학교'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방학중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한 학생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글을 읽고, 쓰고, 자신의 글을 발표해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마중물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온책읽기], [동네BOOK 글놀이]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글놀이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ON-OFF line) 글쓰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첨삭지도로 학생들의 글쓰기 활동을 지원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역량강화를 위한 '온책읽기' 연수를 2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교육지원청은 [아산 글놀이학교]를 2018년 아산 주요 업무 중점사업으로 정하여 좋은 책을 의도적인 계획으로 읽게 할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찾아 읽고 생각 나누기를 즐겨하며, 글쓰기와 연린 토론 마당 등 다양한 표현 및 발표 기회제공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지성과 감성이 균형을 이룬 인문학적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펼치고자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며 글을 쓰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기초학습 능력이 신장하고 인문학적 소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은 자연스럽게 키워나갈 것이라 기대한다.

아산=리량주기자

한국타이어, 건설현장용 차종 전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유럽 상용차 스카니아 타이어 공급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조현범)가 유럽 프리미엄 상용차 브랜드인 스카니아(Scania)의 'XT'에 신차용 타이어(OET: Original Equipment Tire)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2016년 11월 처음으로 스카니아 건설현장용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XT' 공급을 통해 스카니아에서 판매하는 건설현장용 차종 전 모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타이어는 모두 온-오프로드 겸용으로, '스마트 워크 AM06(Smart Work AM06)', '스마트 워크 AM09(SmartWork AM09)', '스마트 워크 AM15+(SmartWork AM15+)' 등 조향축용 타이어 3종과 '스마트 워크 DM06(SmartWork DM06)', '스마트 워크 DM09(Smart Work DM09)' 등 구동축용 타이어 2종이다. 스마트워크 라인업은 뛰어난 안전성과 탄력성을 갖춘 제품으로, 건설현장 출입 차종에게 필수적인 비포장도로 주행능력과 충격 흡수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조현범 사장은 “이번 스카니아 신차용 타이어 공급은 한국타이어의 글로벌 Top Tier 기술력이 유럽 상용차 시장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전했다.

김정한기자

금산교육지원청, 2018 종합감사 수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은 1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 수감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감사반은 감사단장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지난 2015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 수감자료 요구목록에는 수당, 인사, 근무상황부 등 청렴한 공직기강 조성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감사에 앞서 이희천 교육장은 직원들에게 “감사반의 자료요구에 최대한 협조하길 바라며, 우리 금산교육지원청의 청렴한 교육행정 실현을 위하여 감사반 또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주연기기자

영하 14도…서산 00병원 난방고장에 환자 '덜덜'

병원관계자, 난방 고장 민원 없었다 오리발 · 입원환자, 난방 중단 맞다

한파가 몰아친 지난 27~29일 새벽 서산시 한 종합병원 5층 입원실 난방이 오작동해 입원환자들이 추위에 덜덜 떨어야 하는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 측은 지난 27일 서산의 기온이 영하14도로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 난방을 조절하는 제어장치가 고장 나서 난방 공급이 고르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동안 5층 병실 난방이 안되면서 그렇잖아도 몸이 불편한 환자와 이들을 간병하는 보호자가 강추위가 몰아친 새벽에 장시간 추위와 싸워야 했다.

보호자 모씨는 "병원에 난방이 안되면서 환자 수십 명이 3일간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환자들의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5층 511호실은 보호자 없는 병실로 고령의 6명이 환자들이 입원한 곳이라 감기 등 건강악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제보자 A씨는 "입원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병원이 관리부실로 입원환자들의 건강을 악화시켜놓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병원 시설 관계자는 "난방기계가 삼성 것이라 삼성에서 수리를 해야 한다. 환자들을 위해 우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추우면 임시조치로 개인난방기를 줄 예정이니 우선 오늘 저녁만이라도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양일간 난방 문제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혀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거센 비난을받고 있다.

병원 측 유지시설보수 팀이 점검을 하고 있는 중에도 병원 측 간부는 난방 불편으로 민원이 들온 것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환자를 무시하는 처사를 그대로 보여 주기도 했다.

서산=김정한기자

당진소방서, 비 응급 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당진소방서(서장 박찬형)가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잦은 비 응급환자의 신고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대응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으로, 119신고접수 단계에서 단순감기환자, 주취자, 검진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 비 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도착해 비 응급환자로 확인된 경우는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비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최초 1회부터 200만 원)가 부과된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소방서 온양남성의용소방대

온주지역대장 이 · 취임식 행사

아산소방서(서장 이규선)는 지난 26일, 온양초등학교 1층 시청각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남성의용소방대 온주지역대장 이 ·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 · 취임식은 지난 재임 기간 동안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지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최완규 이임대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 취임하는 윤병하 대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병하 의용소방대장은 "항상 지역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원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지킴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천안동남소방서, 화재 취약대상인 전통시장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실시

천안동남소방서장(서장 김경호)는 천안시장 및 천안역전시장에서 겨울나기를 위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취급주의, 철시시 전원차단, 관계자의 주기적 순찰활동 강화 당부 및 소화기 사용법과 호스릴소화전 교육으로 진행된다.

천안동남소방서 관계자는"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고 야간에는 특정관리인이 없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소방서의 화재 취약대상으로 특별관리 되고 있다"며"앞으로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방차량을 활용한 예방순찰활동 등 단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의 역량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채기병기자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 위생 방문교육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여인섭)는 143개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 안전과 영양 순회교육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균형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어린이 영양 수준 향상, 위생적인 조리환경 조성을 위해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중구 어린이급식소 중 센터에 등록된 시설이고, 교육은 식자재 구입과 보관 · 조리공정의 위생관리와 식단 · 염도관리 등 영양관리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센터에서는 어린이가 좋아하는 인형극을 보여주며 균형잡힌 식습관 형성과 올바른 식품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2월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비만예방 영양캠프를 열어 비만체험과 다양한 놀이 활동으로 잘못된 식습관 개선으로 어린이 균형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태선기자

예산소방서 신양면전담의용소방대

초기대응으로 화재 진압 '화제'

예산소방서 신양면전담의용소방대(대장 엄상섭)가 지난 26일 오전 10시경 신양면 황계리 소재에서 발생한 차량화재를 신속한 출동 및 초기대응으로 화재를 진압해 화제가 되고 있다.이날 발생한 화재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화재 현장에서 약 5km정도 인근에 위치한 신양면전담의용소방대가 화재출동 문자접수 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엄상섭 신양면전담의용소방대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화재진압 및 소방차량 조작훈련을 통해 내 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 활동에 주력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밝혔다.

예산=양성업기자

한국납세자연맹, '세무조사 추징실적' 인사고과 반영 금지해야

정치적 세무조사와 납세자권익보호 위해 필요 주장

정치적 세무조사와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감독위원회와 세무감찰국 두고, 세무조사 추징실적이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9일 '국세행정 개혁TF'가 발표한 세무조사 권고안에 대해 "기존의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강화한 것과 세무조사 추징세액 비중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성과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고 납세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권고안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납세자연맹은 또 세금 추징실적 반영 비중이 조직성과지표와 개인성과지표에 각각 61%, 29%가 반영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나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가장 큰 요인은 국세행정이 실적위주의 전근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개혁TF 권고안 중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세무공무원이 감사관실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미국은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두어 예산을 통제하고, 감독위원회로 하여금 국세청장을 추천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내국세법 제7803호는 "국세청이 세금추징실적, 탈세 수사 의뢰 건수, 체납징수실적 등으로 직원을 평가하거나 할당량 또는 목표를 부과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세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공평한 세법 적용, 윤리적인 자세 등을 직원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법 준수 여부를 인사고과권자가 분기별로 자체 인증하는 한편 재무부산하의 세무감찰국이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미국 · 스웨덴 등 선진국 국세청은 '세수실적달성'에서 '납세자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되었다"며 "인사고과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어 "국세행정 개혁 TF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5개월간의 짧은 기간으로 제대로 된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고 그동안 쌓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내부의 자체적인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선기자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사이버선거사범 단속 강화

경찰청, 2월 12일부터 「선거전담반」 운영 등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첩보수집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인 2월 12일부터 「선거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24시간 즉응체계를 확립한다.

후보자등록이 시작되는 5월 24일 부터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선거 사범을 총력 단속하는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흑색선전'(가짜뉴스 유포 · 후보자 비방) 및 '선거방해'(홈페이지해킹 · DDoS 공격)이다. 특히, 가짜뉴스는 파급력 및 영향력이 크고 중대하므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에 입각하여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검색 ·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수사팀을 「사이버공격대응팀」으로 편성 · 운영하고,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 · 증거 확보 등의 즉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짜뉴스 등의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유포 ·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관위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정보 공유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중요사건은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증거위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박봉관기자

구급품질 향상 위한 구급대원 특별교육

공주소방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전문성 강화하고자 실시

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29일 영상회의실에서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월 2회로 진행하는 교육으로써 구급지도의사인 천안충무병원 응급의료센터장 최일국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구급대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관련 직무교육, 현장 활동의 고충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심전도 판독 등 심정지 환자 평가 및 처치법 ▲병원 전 뇌졸중 선별검사방법 등 표준 뇌졸중 척도 시행방법 ▲환자 유형별 병원선정의 중요성 및 선정 기준 등 이론교육이 진행됐다.

공주소방서 오영환 서장은 "이번 특별 직무교육으로 구급대가 최상의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에 구급대원 각자 맡은바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천안시, 설 명절 물가 안정 나선다 '합동 지도 ·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과 물가안정 캠페인 등 따뜻한 명절 준비

천안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3일간 관내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설 명절대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 지도 ·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충남도를 비롯해 물가모니터와 합동으로 총 12명, 2개 점검반을 편성해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가격표시제를 안내하고 홍보물 배부도 병행한다.

또, 설 명절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설 연휴 전 남산중앙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과 주요 상점가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자제,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를 내용으로 캠페인을 통해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과 · 배 등 주요 성수품과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해 물가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피부에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이남동 지역경제과장은 "설 명절대비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과 물가안정 대책을 적극 펼쳐 시민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채기병기자

서천소방서, 한파에 소방시설 동파주의 당부

관계자의 세심한 점검 및 관리 요구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29일, 이번 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가 예상되는 등 계속되는 한파에 따라 소방시설 동파주의를 당부했다.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 같은 소방시설은 물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시설로 동파의 우려가 매우 크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같은 경보시설 또한 낮은 기온에서 잦은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관계자의 세심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된다.

겨울철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책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배관 노출로 동파우려가 있는 설비는 배관 보온조치 ▲지상층에 있는 펌프실 보온조치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정기적인 작동점검 확인 등이다.

한상우 현장대응단장은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며 관계자가 평상시 유지 ·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소방시설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훈련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김태선기자

2018 상반기 의용소방대 지도 · 감독

서산소방서,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실시

서산소방서(서장 류석윤)가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21개대에 대한 지도 ·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 감독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육성하고, 의용소방대를 지역 방재의 구심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서산소방서는 소속 안전센터 및 지역대 청사를 순회하며 조직편성 운영상태, 교육훈련 실시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복무점검과 함께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및 현장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소양교육과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지도 · 감독 결과 미흡한 부분은 시정 · 보완 지도하고 운영 관련 도출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검토 후 조치할 방침이다.

서산=김정한기자

‘사투리 쓰는 직원과 의사소통 어려움 느껴’

<커리어> 인사담당자 483명 대상 ‘사투리 교정의 필요성’ 대한 설문조사결과

지난주 커리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취업하려면 사투리도 교정해야한다고 밝힌 가운데, 인사담당자 83%가 구직자의 사투리 교정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인사담당자 483명을 대상으로 ‘사투리 교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먼저 ‘구직자에게 사투리 교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불필요하다(83%)’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투리 교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취업을 위해 굳이 사투리를 교정할 필요는 없다(67.1%)’가 1위를 차지했다. ‘본인만의 매력이 될 수 있다’ 28.2%, ‘회사가 지방에 있어 대부분의 직원이 사투리를 쓴다’ 4.2%였다. 기타로는 ‘사투리는 개인의 필요에 의해 교정하는 것이다’ 등이 있었다.

반대로 ‘사투리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다. 응답자의 67.1%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표준어가 도움이 되므로’라고 답했고 ‘업무상 표준어 사용이 필요하므로(22%)’, ‘면접에서 사투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11%)’ 순이었다. 응답자의 72.9%가 ‘회사에 사투리를 쓰는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해당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웠던 적이 있나’를 묻자 ‘가끔 있었다(4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별로 없었다(33.5%)’, ‘전혀 없었다(17.1%)’, ‘자주 있었다(1.4%)’ 순이었다.

인사담당자의 절반 정도가 사투리를 쓰는 직원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다는 답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사투리가 채용 과정에 영향을 주기도 할까?

마지막으로 ‘구직자의 사투리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주는가’를 물었다. 인사담당자의 86.3%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그렇다’ 13.7%였다. 구직자의 절반이 ‘본인이 기업 인사담당자라면 구직자의 사투리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줄 것 같다(52.5%)’라고 답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정복기자

아산교육지원청-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충남도지부 아산지부

재능기부 교류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아산교육지원청(이심훈 교육장)은 29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충청남도지부 아산지회와 지역사회 재능기부 교류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하굣길 조성사업이 지원되며, 수상인명구조대 재능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활동의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심훈 교육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연계 및 학생 모집 등 적극적으로 협조 할 것을 약속"했으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아산지회 지회장은 추진사업이 원활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책무성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서산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오는 2월 5일, 6일 2일간 원서 접수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은 지난29일 “2018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고용 계획”을 홈페이지(www.cnssed.go.kr)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직종별 채용인원은 교무행정사 5명(장애인전형 1명 포함), 조리원 9명, 특수교육실무원 1명, 전문상담사 1명, 시설관리원 1명, 청소원 1명으로 총23명(장애인전형 1명 포함)으로 “고용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산시로 되어있는 만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부터 만60세 미만인 자”이다. 특히 이번에는 청소원 직종에는 노령화사회에 발맞추어 고령자(55세 이상, 1963.2.28. 이전 출생자)를 고용할 뿐 아니라 교무행정사 직종에는 장애인 전형도 있어 사회소외계층도 포함하였다는 평이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5일, 6일 2일간이며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2월 9일 2차 면접시험으로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2월 13일 서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은 오는 3월 1일자로 서산시 내 각 공립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nssed.go.kr)에 탑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산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공무직원 담당(660-0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김정한기자

충남도교육청,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학교 석면교체공사 안전관리 대책회의

충남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최근 “학교 석면철거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적극 화답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교체공사를 실시하는 60개교에 대해 일일 점검과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자체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학부모를 포함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철저하게 조사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공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겨울방학 중 석면교체공사 학교의 안전관리인과 공사감독자 90명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부실공사방지 및 관리·감독강화를 위해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 안전관리 방안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 준수사항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학교석면의 안전관리 매뉴얼 ▲전문업체 석면해체·제거공사 법령사항 ▲공사 후 석면잔재물 검사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이정복기자

대전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 강화

특수교육 지원비 216억 5천만원 지원, 특수학급 27학급 신·증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216억 5천만원을 투입해 다양한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하며, 대전 지역 전체학교에 27학급을 증설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 지원비 32억 원, 통학지원비 8억 원, 특수학급 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14억 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인건비 131억 원, 특수학교(급) 방과후 학급 운영비 9억 원, 특수학교 계절학교 운영 지원비 4억 원, 치료지원비 11억 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209억 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특수교육 지원 강화’ 사업비 7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아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및 인권보호 사업,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 강화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8학년도에는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 4학급, 초 7학급, 중 7학급, 고 6학급 총 24학급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며, 특수학교도 2017학년도 대비, 대전혜광학교 2학급, 대전가원학교 1학급, 총 3학급의 학급을 증설함으로써 학생과밀 해소 및 균형적인 교육 지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2018학년도는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 등 모두의 힘을 모아 행·재정적 지원 및 사회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센터 운영

세종시 읍면지역의 교육을 뒷받침 할 지원센터 시범 운영

세종시 읍면지역의 교육을 뒷받침 할 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9일 오전 시교육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세종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이 달라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읍면지역의 학부모 및 학생들은 동(東)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정서적 불안감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북부교육지원센터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3·4층에 강의실 2실, 사무실, 상담실, 휴게실 등으로 꾸몄으며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세종교육원으로 이전, 운영하게 된다. 북부교육지원센터는 센터장인 장학사와 주무관 2명, 전문상담사 1명, 교육복지사 1명, 수습교사 2명 등 7명이 근무하게 된다.

북부교육지원센터는 읍면지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순회 강사 지원과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복지지원, 학부모 상담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읍면지역의 학급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생개별성장발달 사업을 초등학교는 지난해 30학급에서 올해 70학급으로 확대하고 중학교는 10학급을 새롭게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할 체계를 마련해 동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이정복기자

한밭교육박물관, 12월까지 연중 문화체험 프로그램

‘2018년 추억의 학창시절’ 운영

한밭교육박물관(관장 정규남)은 오는 12월까지 연중으로 문화체험 프로그램 ‘2018년 추억의 학창시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60~70년대 교실을 재현한 옛 교실에서 옛 교복을 입고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가 보는 것으로 박물관에서는 추억의 과자를 제공하며, 즉석에서 사진을 찍어준다. 또한 박물관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나라 교육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www.hbem.or.kr)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참가 대상자 확정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학예연구실(042-670-221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정환기자

공주교육지원청 ‘2018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실시

청렴도 향상 추진방향 및 실천방안 협의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청렴도 향상 추진방향 및 실천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주관하고 공주교육지원청 직원 및 초중등 교장단 대표가 함께하여, 2018년도 공주교육지원청 청렴도 향상 추진방향과 공사관리,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 운동부, 방과후학교 등 대민분야의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공주교육지원청은 청렴정책을 소개하고 도교육청은 청렴정책의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등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나은 청렴정책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영덕 교육장은 “공무원의 청렴 소양은 기본이며, 학부모, 학생, 외부강사 및 관련업체 등이 만족하며 공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펼치고 싶다.”며 2018년 청렴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아산시보건소, 걷기동아리 활동 개시 아산시보건소는 걷기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걷기동아리가 지난1월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연구원,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원장 김상학, 이하 세종교육연구원)은 2월 6일부터 「2018년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3월 5일 개강하여 6월까지이며,유아 대상으로 ▲오터치 오감발달 ▲딩동댕 플레이 키즈 ▲창의력 쑥쑥! 독서미술 등 6강좌, 초등학생 대상으로 ▲코딩&플레이, 코딩교실 ▲박선생! 창의역사교실 ▲영어 동화 스토리타임 등 8강좌가 운영된다.

또한, 학부모 및 성인 대상으로 ▲도자기 멋에 빠지다, 도예작품반 ▲느낌있는 손글씨 캘리그라피 ▲창의영재과학지도사 2급 등 10강좌가 운영된다.

상반기 강좌 수강 희망자는 세종교육연구원 수강신청 누리집(www.sjle.or.kr)에서 2월 6일 오전 10시부터 8일까지 신청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은 2월 9일 세종교육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세종교육연구원 평생학습부(☎ 044-410-1422, 410-1432~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세종=이정복기자

금산교육지원청, 2018 비단뫼마을명예교사 모집

금산교육지원청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유·초·중·고의 교과 및 자유학년제 수업에 협력교사로 교육기부를 실시하는 2018 비단뫼마을명예교사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년제와 관련된 인문/예술, 해설사, 이미용, 요리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고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유선(장학사 민미연, 041-750-8850) 및 금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cngs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마을명예교사에 위촉되면 학교현장에 인력 풀 형태로 지원되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배움체제를 통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이희천 교육장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만큼, 마을교육의 시작과 중심을 비단뫼 마을명예교사 분들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마을명예교사의 중대성을 강조하였다.

금산=주연기기자

●동 정●●●

충남 스페셜 녹화 진행

김석환 홍성군수= 30일 오전 10시 홍주성 천년여행길 일원에서 CJ헬로비전 충남방송 『충남 스페셜』 녹화 진행.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설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중점 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폐수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과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5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금강 및 주요하천 등을 감시하고, 연휴 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진행한다.

환경녹지국 손권배 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폐수무단방류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충남도 밀의 생산 기반 확대

충남도가 소비량은 쌀에 버금가지만, 국내 자급률은 2%에도 못 미치는 밀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밀은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32.1㎏을 소비, 쌀(61.9㎏) 다음으로 소비가 많아 '제2국민주식'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자급률은 1.8%에 불과, 나머지는 수입 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밀 재배 면적은 전국의 1.1%로, 생산 기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내 밀 생산농가는 그동안 이웃 지역에서 농기계 또는 시설을 임차하고, 종자 확보, 파종 및 수확, 건조 등의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도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올해 도내 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밀 생산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생산 장려금 및 시설장비 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을 보면, 40㎏ 한 포대 당 일반 밀은 5000원을, 친환경 인증 밀 확대를 위해 무농약은 7000원을, 유기농은 1만 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후작으로 콩이나 메밀 등 타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를 우선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는 클라스 콤바인과 정선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한다.

시설장비 지원은 1㏊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시·군 단위 사업과, 도내 밀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역 단위 사업은 밀 생산법인에 대규모 시설장비를 지원한 뒤, 소규모 생산 농가와 공동 사용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밀 생산 주체가 부족한 자원을 서로 보완해 가며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홍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충남은 밀 산업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은 생산 기반 확충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우리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밀 산업 활성화와 먹거리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한 기자

'디스플레이 혁신플랫폼' 예타 치른다

충남도, 산업부 사업 입지 선정 공모 통과 따라 최근 사업계획서 제출

충남도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7년 동안 총 80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과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 입지 선정 공모 통과에 따라, 최근 산업부를 통해 과학기술정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기술성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사업 추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은 LCD 시장 주도권을 중국이 장악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인 OLED로 국내 사업을 재편, 디스플레이 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원가와 기술 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통해 차세대 산업 경쟁력을 강화, 경쟁국과의 격차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예타를 치르게 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7년 간 국비 6000여억 원, 지방비 600억 원 등 총 80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R&D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센터는 2300억 원을 투입해 천안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지상 4층 연면적 1만 188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혁신센터에서는 기업 특화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장비·소재 기업 기술 테마 발굴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R&D 분야에서는 애니폼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지능정보형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계획대로 추진되면, 산업적으로 △생산기술 경쟁국 대비 2년 이상 격차 확보 및 시장 점유율 70% 이상 달성 △고해상도 대면적 및 중소형 플랙서블 AMOLED 공정 장비 시장 선도 및 시장 점유율 60% 이상 달성 △디스플레이 신응용 분야 신시장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적으로는 △AMOLED 부품 소재 기술 확보 △미래 핵심 원천기술 및 플랙서블 산업 주도권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 내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액은 2016년 기준 326억 달러로, 국내의 492%, 세계의 215%를 차지한다"라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력과 기술 혁신 선도를 통한 세계 1위 유지를 위해 계획대로 예타가 통과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10년 동안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기술 지원 사업으로 672억 원을 투입, △기업 R&D 지원 6만 1219건 △장비 활용 기업 1735사 △기술 지원 1950건 △인력 6123명 양성 등을 통해 기업 매출액 향상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과 함께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허브 구축 사업',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R&D 및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정한 기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업무협약 체결

예산군, 신청 업체별 특례보증 한도는 3천만원 이내

예산군은 26일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과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군은 지난해 보다 배가 늘어난 2억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배인 24억원의 신용보증을, 충남도에서는 이차보전금 2%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신청 업체별 특례보증 한도는 3천만원 이내로 재원 소진 시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특례보증 지원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되면서 보증수요가 꾸준히 증가했다"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본점(041-530-3813)으로 하면 된다.

예산=양성업기자

일자리정책 로드맵 1차 이행점검 회의

세종시,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일자리정책의 양·질적 개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9일 청사 내 집현실에서 세종시 일자리정책 로드맵 1차 이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성장-고용-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기틀로, 건전한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 아이디어 등을 반영한 '세종시 일자리정책 로드맵(5개 분야 36개 중점 추진과제)'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마련한 로드맵의 이행과정 관리를 위한 것으로, 관계 부서장의 로드맵 중점과제 별 추진현황 보고와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부서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 일자리정책 로드맵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담보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정책을 개발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로드맵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일자리정책의 양·질적 개선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자리추진위원회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김정환기자

예산군 지역문화유산을 활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산군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과 '서원·향교 활용사업'에 각각 대목장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예산향교 프로그램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우리의 전통건축을 체험하라' 대목장 생생체험 프로그램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된 대목장을 주제로 기획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고교생, 대학생, 성인 연령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전통건축을 체험하라' 대목장 생생체험은 △1박2일 대목장캠프 △찾아가는 대목장 고건축교실 △대목장 인형극장 '대목장의 삶' △기획전시 '대목장 생생전시회' △세계유산으로 만나는 인류의 고건축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유산 어플제작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각 프로그램별 연령에 맞춘 강좌 및 체험으로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고건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는 예산향교에서는 '예산향교(禮山鄕校)에서 화양연화(花樣年華)를 스케치하다!'를 주제로 한 웰빙 케이터링 교육을 통해 예산향교가 인생 이모작 학교로 변화하게 된다.

또한 예산의 충·효 인물 유적 답사를 통해 살아있는 충효교육을 진행하는 '묵향 가득한 충효길을 따라서' 1박 2일 캠프, 지역의 초등학교 · 중학교와 교육체험 업무협약을 통해 온고이신 정신을 체험하는 진로 및 충효교육프로그램인 '우리는 효심이 충심이!', 예산문화유산 관련 북아트작품 등 전시, 꽃차 대접, 전문 연주자와 효를 스토리텔링한 매직아트 공연 등 향교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 '예산향교와 만나장(場)'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4월 말부터 11월부터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문의는 예산군청 문화관광과(041-339-73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추후 예산군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문화재 활용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의 소중한 자산인 문화유산을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예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세종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 접수

"주민 주도적 역량 발휘 기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제안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종시에 주소나 생활권을 둔 5인 이상 주민모임이나 비영리단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 중 주민참여 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는 총사업비(1억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세종시 도시재생 대학수료자 주민모임(단체) 제안사업이 선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모사업 분야는 ▲공동육아와 돌봄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마을미디어 ▲마을조사 및 계획 ▲마을축제·전시·체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다양하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면 자유롭게 발굴·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 31일 오후 10시 도담동 싱싱문화관(1층)에서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과 참여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공동체과 배영선 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마을공동체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사업 신청방법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지역공동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kjh0423@korea.kr)로 접수한 후 유선전화(044-300-5012)로 확인하면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홍성군보건소 경로당 순회교육 인기

조기질병발견 기회 마련 · 지역 내 건강지킴이 역할 톡톡

홍성군 보건소가 '떴다! 동경(동네 경로당)순회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홍성군보건소 지역보건팀은 본격적인 농한기를 맞이하여 지난 1월 5일부터 월산 2구 경로당부터 시작해 369개 경로당 주민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로당 순회교육사업은 ▲교육·홍보 전문 전담팀 구성 (금연상담사 외 치위생사, 간호사 등) ▲보건교육(만성질환, 겨울철 건강관리, 구강관리, 금연관리) ▲보건1차 검사(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유소견자 발견(등록 및 집중사례관리) ▲건강상담(맞춤형 1:1개인상담, 말벗서비스)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문제를 파악해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참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교육을 통해 소외된 어르신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조기질병발견의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내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김정한기자

홍성군, 2018년 소비자 브렌드 대상 수상

관광도시부문 최우수 선정

홍성군(김석환군수)이 홍주지명 탄생 천 년의 해를 맞아 지난 29일 동아일보사가 주관하는 2018 한국 소비자평가 관광도시부문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번 한국소비자 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사전조사, 소비자 리서치 조사, 전문가 그룹의 평가 등 심도 있고 다양한 내·외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상이다.

군은 홍주천년 기념사업을 위해 2016년부터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기념사업 T/F팀 구성 등 기념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천년이야기 기록화 사업, 홍주천년 원정대 만화책·애니메이션 제작, 홍주천년 역사재발견 강연 개최해 왔다.

지난1월1일 홍주천년 선포식 및 일출맞이 행사, 홍주천년 상징조형물과 홍보문구를 담은 옥암생태통로 설치 등의 사업을 전개하며 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홍성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도시브랜드 향상과 군민의 역사 인식 재정립에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8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된 홍성역사인물축제와 함께 홍주성과 지역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홍주천년 대축제>를 개최해 신나는 공연과 재현행사, 체험행사, 전시행사 등을 진행하는 대규모 축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홍주지명 탄생 천 년의 해를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며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의 역사 인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연중 방영하고, 옥암 회전교차로에 홍주천년 상징물을 설치해 홍주천년을 기념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홍성=김정한기자

동정

국제안전도시 선포식

복기왕 아산시장=30일 오후 2시 시민홀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에 참석.

순성면 연두순방

김홍장 당진시장=30일 오전 10시 순성면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리는 2018년 순성면 연두순방에 참석.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회의

한상기 태안군수=30일 오후 2시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70회 도민체전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

유관기관 방문

이석화 청양군수=30일 오전 10시 정산도서관에서 열리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후 오후 1시 30분 교육지원청 등 2018년 새해 유관기관 방문을 실시.

귀농 · 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태안군, 2015년부터 '귀농인의 집' 운영 큰 호응… 올해 2개소 추가 건립

최근 도시를 떠나농촌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귀농 · 귀촌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귀농인을 위한 영농정착 종합지원을 확대하며 도시민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군은 귀농 · 귀촌 희망자들이 농지 및 주거지 구입 등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지난 2015년부터 '귀농인의 집(귀농 · 귀촌인 임시거주공간)'을 운영,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인이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며 영농기술 등 귀농 준비를 실시하고 생소한 농촌 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6개 동이 운영 중이다.

최대 3개월 간 거주가 가능하며, 특히 마을 인근에 위치해 지역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인기가 높다는 평가다.

원북면 갈두천마을 내 귀농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촌인 김모(46) 씨는 "마을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영농정보를 얻을 수 있어 그동안 막연하기만 느껴졌던 귀농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이 큰 힘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은 귀농인의 집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6천만 원을 들여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추가 건립키로 하는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임시거주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귀농 · 귀촌인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는 한편, 기자재 지원 및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인 일자리 지원센터(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에 나서 이들이 군민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 군수는 "태안군은 귀농 · 귀촌인들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귀농인과 마을주민 간 교감과 화합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태안군민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군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안 =김정한기자

당진시 보건소 세균성 이질 감염 주의 당부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해야

당진시 보건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세균성 이질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군 법정 감염병인 세균성 이질은 이질균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감연 12시간에서 7일 후 발열과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300명 정도가 세균성 이질에 감염되고 있는데, 올해는 이달 15일 기준 세균성 이질 신고환자 수는 36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26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초까지 필리핀 세부지역을 여행한 후 설사와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당진시 보건소는 필리핀 여행 후 세균성 이질과 콜레라 같은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방법으로는 해외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와 안전한 음식 섭취하기,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 ·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등이다.

귀국 후에는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

당진=최근수기자

신정호쭈꾸미-온양4동 행복 나눔 협약

아산시 기산동에 소재한 신정호쭈꾸미(대표 김우권)가 지난 26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원협약을 온양4동 행복키움추진단(단장 박길남)과 체결했다.

이번 후원협약을 통해 신정호쭈꾸미는 관내 소외계층(장애인, 저소득 아동 등)을 대상으로 무료 외식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김우권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준 동장은 "나눔 활동에 참여해주신 신정호쭈꾸미 김우권 대표에 감사드린다.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새 민원복 갈아입고 '군민행복 민원실' 앞장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군민이 만족하는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새 민원복으로 갈아입고 미소와 친절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다.

군은 단정한 복장으로 소속감을 높이고 더 친절하고 책임감 있게 민원을 처리한다는 마음가짐 갖고자 통일된 유니폼을 착용케 하고 있다.

윤종인 민원봉사실장은 "민원실 직원은 보다 높은 친절도와 고객감동을 주는 마인드가 요구된다"며 "늘 단정하고 친절하며 화사한 미소로 민원인을 내 집 같이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다짐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군은 민원인이 만족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봉사실 각 팀장을 민원도우미로 지정해 정확한 안내와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원공무원행동강령과 민원서비스표준매뉴얼을 정비하고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후견인제, 민원택배제 및 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를 활성화해 편의제공에 힘을 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지적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군민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가치를 상승시키고, 조상땅 찾아주기, 도로명 주소의 정착과 신속한 건축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전반적 고품격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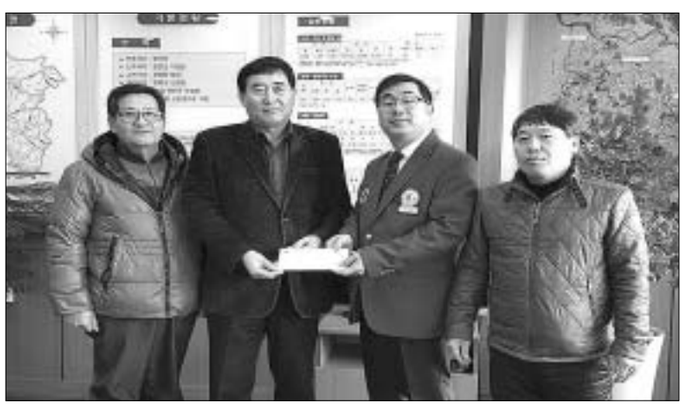
특히 전년도 조직개편으로 건축팀과 원스톱민원팀을 보강한 민원봉사실은 1회 방문 민원처리에 주력해 복합민원 개발행위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의 원스톱 일괄처리로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힘입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전국 82개 군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위상과 자긍심을 높였다.

윤종인 실장은 "올해 민원실 확장공사와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람중심, 내 집 같은 군청, 행복한 군민을 역점시책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신창라이온스클럽 신창면 장학금 전달



아산시 국제라이온스협회356-F지구 신창라이온스클럽(회장 정공철)이 지난 26일, 신창면 관내 학교 졸업생을 위한 장학금을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세흥)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관내에 소재한 4개 학교 2018년도 졸업생 중 성실하고 모범적인 저소득아동에게 전달하게 될 예정이다.

정공철 회장은 "지역의 후배들을 위해 봉사단체에서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라도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꿈을 이뤄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흥 단장은 "우리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두 한마음으로 행복키움 나눔에 동참해 주신 라이온스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봄 가뭄 피해 미리 대비한다"

당진시, 농작물 가뭄 극복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

당진시가 반복되는 봄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당진지역의 최근 5년 간 강수량은 2012년 1,791㎜에서 2016년 841㎜, 2017년 823㎜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특히 작물 생육기인 5월부터 10월까지의 강수량은 2016년 592.5㎜, 2017년 683㎜로 각각 평년의 56.4%와 65%에 머물며 영농활동에 큰 지장을 줬다.

이에 당진시는 관내 31곳, 666㏊에 대해 상습 가뭄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시장을 지역대책본부장으로 부서별 상황관리 및 지원 ·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용수공급과 농작물, 먹는 물, 생태환경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총 3,000여 억 원을 투입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용수공급 분야에서는 수혜면적이 1,309㏊에 이르는 산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2020년까지 조기 추진하는 한편 자개 지구 양수장 설치사업도 2018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정기적으로 삽교호 내 퇴적물 준설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아산호와 삽교호 간, 삽교호~대호호 간 수계 연결을 통해 가뭄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작물 분야에서는 상습 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가뭄에 대응한 작목별 신품종 도입과 확대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먹는 물에 대해서도 2017년 기준 87% 수준인 유수율을 2020년까지 895%로 끌어올리고 빗물이용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저 영향 개발(LID) 도입을 통한 물 순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설 명절 물가 안정에 총력

성수품 · 서비스요금 집중관리 추진… 1개반 8명 편성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대책 추진에 나선다.

태안군은 2월 1일부터 18일까지를 '설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설을 맞아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태안군은 경제진흥과 내에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는 한편, 현장위주의 관리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1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돌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와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한 합동 지도 ·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성수품과 각종 제수용품 등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소비자단체 회원과 물가 모니터단을 적극 활용, 물가 동향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해 설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은 특별대책기간 중 전통시장 내 165㎡ 미만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 과일과 생선 등 설 제수품목과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2월 5일에는 태안특산물전통시장과 서부재래시장에서 군 관계자와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 홍보물품 및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차분하고 건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에 편승한 성수품 가격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에서는 수시로 가격 동향을 살피고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요금인하를 권고할 계획"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청양군 참여를 통한 변화 유도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식 열려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29일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예산운영의 투명성 증대와 참여자치 구현을 위해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설명, 주민참여예산 교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해 행정복지 · 농업경제 · 건설도시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 임원이 선출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을 임기로 주민이 제안한 사업 심사, 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의견 수렴 등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가교 및 주민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석화 군수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과 함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화성면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신청

청양군 화성면(면장 양근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4대 스포츠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홍보에 나섰다.

신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온라인(www.mnui.kr.kr)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아이핀 인증서가 있어야 되며 카드발급은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기존 발급자는 카드 지참)을 지참하고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카드발급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사용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사용가능금액은 7만원(전년도 6만원)으로 온라인 매장(가맹점 검색)이나 오프라인 매장(청양군의 경우 청양시네마, 체육사,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양근석 면장은 "이제 청양에서도 문화누리카드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었다"면서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최홍묵 시장 면 · 동 연두순방 나서

다음달 1일부터 4일간…각계각층 여론 수렴

최홍묵 계룡시장은 다음달 1일 두마면을 시작으로 6일까지 4개 면 · 동 연두순방에 나선다.

최 시장은 2017년 시정 주요성과와 새해 시정방향 및 미래비전 등을 제시하고 지역의 현안과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등 계룡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2018계룡軍문화축제 내실화 방안▲충남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민 · 관 · 군 협력방안▲2020계룡세계軍문화엑스포 추진방안등에 대해 민심을 폭넓게 청취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다양한 민원에 대한 현장해결과 의견수렴을 위해 실 · 과 · 단 · 소장을 참석시켜 즉각적인 민원해결에 나서고, 전년도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알리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연두순방에서 접수된 시민의견을 종합적으로 분류해 각 부서로 전달하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시장은 "연두순방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함께 고민하며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계룡의 미래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방일정은 다음달 ▲1일 두마면 ▲2일 엄사면 ▲5일 신도안면 ▲6일 금암동 순으로,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된다.

상수도 동파방지대책 적극 추진

부여군, 상황유지반 등 3개반 26명 비상대책반 편성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상수도 계량기 등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시 긴급 복구를 진행하고자 '동절기 상수도 동파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동파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1만7099가구에 배부하는 한편 읍 · 면 이장회의시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 예방 교육과 마을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오는 3월 20일까지 상황유지반, 현장확인반, 긴급처리반 3개반 2개조 26명의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신속한 민원접수와 현장투입, 복구작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상수도 계량기 동파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노출된 수도관은 헌옷으로 감싸는 등 보온조치,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에 보온재 투입, ▲영하 10℃이하일 때 물이 흐르는 상태로 유지,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계량기가 층별 복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 출입문 또는 층별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주의 등 예방요령을 당부했다.

부여=이정복기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가사업비 확보

부여군,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규암지역 추가시행 사업비 74.2억 확보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7년부터 K-water와 협업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노후상수도관 교체, 누수 탐지와 복구, 수도관 정비, 관망블록시스템구축, 유량 감시체계 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부여읍과 석성면, 초촌면 내 유수율을 51.1%에서 85%까지 끌어올려 안전한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상수도 유지 · 관리비용과 수돗물 구입비용을 크게 낮춰 시설개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부여군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규암면 지역의 노후된 상수도시설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에 사업구역 추가 시행 및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했다.

규암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과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초 195.3억에서 74.2억을 추가 승인 받아 총사업비 269.5억을 2021년까지 투입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 공기업인 K-water의 기업이윤 창출사업이 아닌 공기업의 지역주민의 생활권 확충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부여군과 K-water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유수율 향상 및 예산 절감을 달성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수도행정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물 복지 안전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부여=이정복기자

충남인력개발원 청년 취업 한파 속 '취업률 100% 달성 후끈'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 속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0%대에 육박하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원장 전성규)은 취업률 100% 교육과정이 있어서 주목받고 있다.

충남인력개발원은 1994년부터 다양한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로 2017년 3개학과 19개 과정에서 387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으며, 3D형상(3차원)기계설계과정, 컴퓨터자동화설계(자동화시스템)과정, 태양광발전시스템(전기시스템제어) 등 과정에서 '취업률 100%'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단일과정에서 전원 취업성공 사례는 있었으나, 이처럼 3개 과정 이상에서 전원 취업성공 사례는 획기적인 결과이다. 또한, 2017년도 전체 과정의 평균 취업률에서도 92.6%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한파속에서 취업을 준비한 취준생들에게 단비 같은 희망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충남인력개발원의 높은 취업률은 현장전문가 출신의 교수들과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최신 산업흐름에 맞는 유연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우수 기업체와 취업연계 MOU체결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기업체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7년 12월까지 191개 업체에서 588명의 구인요청(요청률 204.9%)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약 80%가 충남 인근(충남, 세종, 대전) 지역 업체로서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도 구인요청이 늘어난 것은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올해에도 청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3월초까지 2018학년도 국비 취업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과정은 산업기사과정, 4차 산업분야, 취업우수과정 등 9개 과정 250명으로 고졸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과정도 별도 개설되어 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18.01.19(금)] 받아 본격적으로 드론조종사 양성과정을 운영중이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홈페이지(http://cn.korchamhrd.net) 또는 041)850-95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이풍호기자

황명선 시장 "최선을 다한다면 성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20일간 시정 직접 체험한 대학생들과 대화시간 가져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9일 회의실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8일부터 각 실 · 과 · 소 및 읍 · 면 · 동에서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해 온 아르바이트생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안전도시 기반조성 실태조사 결과발표, 소감 및 자유 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도시 기반시설 실태조사는 젊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 우리지역의 교통 · 생활 및 도시환경 실태 연구를 통해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논산시의 시정로드맵 등의 자료로 참고 ·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5개조 26명으로 편성, 관내 9개 권역으로 나눠 ▲보행환경을 해치는 각종 요인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다가구지역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및 대책 ▲각종 도로 시설물 유지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우리지역 현장을 뛰며 만들어 낸 콘텐츠를 공유하고 안전도시 논산 구현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학생들은 ▲무인주차공유서비스 ▲아스팔트 프라이머 사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투명이형제 사용 ▲정기적인 거리 모니터링 실시 등 기존방식의 변화와 홍보의 다양화 등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그 밖에 실 · 과 · 소 및 읍 · 면 · 동에서 활동한 학생들은 동고동락 사업 D/B관리, 주요 시책사업 현장 대민서비스 지원, 시민건강 돌봄 활동 등 각 현업부서에 배치돼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했다.

지난 24일에는 돈암서원, 탑정호, 선사인랜드, 강경근대문화역사거리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방문, 논산관광의 현주소를 살피기도 했다.

학생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활동기간 느꼈던 다양한 경험과 불편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애로점과 건의사항들을 제안하며 격의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제는 창의적 사고, 개성, 개인의 독특한 능력이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선택한 그 길에 최선을 다해달라.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성과는 나온다. 선택한 이후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기이사회 · 대의원 정기총회 열려

계룡시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 다짐

충남 계룡시 체육회(회장 최홍묵)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결산감사 결과와 세입 · 세출 결산(안) 보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 · 세출 예산(안)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안건심의에 앞서 지난해 계룡시에서 개최된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종합 5위 달성 결과 등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체육회 임원 및 대의원들은 지난해 올린 좋은 성과는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서도 종목별 목표점수와 전략을 구상하고 시와 체육회, 종목별 협회가 협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 의결하고 2018년 체육회 운영임원 선임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계룡시 체육회는 올해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이끌고 전국 생활체육대회를 계룡시에서 추가 개최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의 실력향상과 사기진작은 물론, 시정홍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최홍묵 회장은 "제24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계룡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의 사무국을 통합하여 운영 하는 등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꼼꼼하고 체계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영광과 우수한 성적을 다시 한 번 재현하고, 각종 사업 운영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원과 대의원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 신서천화력 특별지원사업 마을특화사업 발굴 총력

특별지원사업비 활용 가이드라인 확정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신서천화력 건설에 따라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비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서면지역을 위한 본격적인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에 나선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지방자치단체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소 건설비의 2%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천군은 2021년까지 총 32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과 서면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홍성돈)는 전체 사업비의 40%를 서천군 전체 사업비로 활용하고 60%를 발전소 주변지역인 서면지역에 할애하는 것으로 작년 1월 확정했다.

또한 서면지역 사업발굴을 위해 제안사업 공모, 주민간담회,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 노력해왔으나 마을간 균형있는 지원과 공동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의 발굴과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작년 12월, 서면이장단과 서면피해대책위원회의 2차에 걸친 연석회의에서 서면지역에 배분된 사업비 192억 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을별 사업비 배정과 대규모 주민소득증대사업을 병행하는 안으로 결정되면서 특별지원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극적으로 마련되었다.

결정 과정에서 배분 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일부 이견도 있었으나, 차등배분 기준의 애매함을 해소하고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 서면지역의 공동체성을 지키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

이와 같은 서면지역사회 합의를 바탕으로 서천군은 올해 4월 마감인 전력기반센터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제출시한에 맞춰 2월 중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3월에 주민과 의회 설명회, 발전소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내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지역 주민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19년도 사업은 서면지역 사업을 최우선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서천=김태선기자

100세 시대 "실버용품"은 천안역 전시장으로

역전시장 은빛행복마트 개장

천안역전시장 안에 고객지원센터와 은빛행복마트의 문이 활짝 열렸다.

천안시에 따르면 29일 천안역전협동조합이 천안역전시장상인회(상인회장 김진국)가 운영하는 고객센터와 은빛행복마트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객센터와 은빛행복마트 개장식은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을 비롯해 임원, 시장내 상인,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장과 임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과보고, 개장사, 축사, 테이프컷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천안시 동남구 공설시장2길 15번지에 위치한 천안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층에 시장을 찾는 고객들 편의를 위한 고객 쉼터를 배치했으며, 1층에서는 은빛행복마트를 운영한다.

은빛행복마트는 성인용보행기, 목욕의자, 미끄럼방지매트, 요실금팬티, 실버슈즈, 보행벨트, 2단 지팡이 등 다양한 실버용품을 갖춰 고령화 시대에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추장, 된장 등 전통발효식품도 갖춰 천안역전시장이 실버 특성화시장으로 나아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천안역전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3000만원, 시비 4억 2000만원 총사업비 10억 5000만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1 · 2층 리모델링으로 완공했으며, 3 · 4층과 외벽은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천안=채기병기자

동 정

찾아가는 소통행정 펼쳐

구본영 천안시장=30일 오전 10시 성정1동, 오후 2시 성정2동을 방문해 현장중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펼친다.

강소농경영체 기본교육

황명선 논산시장=30.(화) 오후 2시 상황실에서 개최되는 2018 제1차 논산시 평생학습협의회에 참석, 오후 6시 30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2018 강소농경영체 기본교육에 참석

물품 나눔 전달식

노박래 서천군수=30일 오전 9시 군수실에 열리는 사랑나누리 물품 나눔 전달식에 참석

읍면 연두순방

이용우 부여군수=30일 오전9시30분 규암면사무소에서 열리는 2018 읍면 연두순방에 참석.

서천군 별별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강

합창 등 주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마을단위 평생교육지원 시스템인 행복학습센터 '별별(別star)학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천군은 올해 13개 읍면에 위치한 30개의 학습장에서 합창, 사물놀이, 퀼트, 목공예, 가죽공예, 손글씨 쓰기 등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14년 장항읍, 문산면, 판교면에서 운영을 시작한 별별(別star)학교는 모든 군민이 평생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난해 13개 읍면으로 운영을 확대해 주민 삶의 터전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과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13명의 평생학습매니저를 각 읍면에 배치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서천군은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랑방 역할을 함으로써 주민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등 개인,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농어촌 지역이 교육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어울려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면서 지역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소통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더욱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042)538-3030

동 정

읍면동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

오시덕 공주시장= 30일 오전 10시 정안면, 오후 2시 신풍면에서 열리는 2018년 읍면동 방문 및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 = 30일 오전 10시 미산면사무소에서 열리는 농업인 실용교육, 오전 10시 50분 성주면사무소에서 열리는 민생현장 방문.

종합발전전략수립 최종보고회

이완섭 서산시장= 30일 오전 11시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농촌지도자 서산시연합회 이·취임식에 참석, 오후 2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30 종합발전전략수립 최종보고회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체육회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

공주시, 행복택시 운행… 주민 만족도 높아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의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행복택시 운행 지역 19개 마을 주민 160여명이 참여, 응답자 중 90%가 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9%의 주민이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16년 1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행복택시는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침체돼 있는 택시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9311명의 주민이 이용했으며, 19개 마을 15개 노선에 대해 주 3일(월, 수, 금), 1일 2회 정해진 구간과 시간에 운행되고 있다. 1인 당 요금은 버스요금 수준인 1400원이며, 읍·면지역은 읍·면 소재지까지, 동 지역은 산성동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행복택시 제도가 이용 주민들의 만족과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운행횟수 증회, 운행 시간대 조정 등 주민 의견을 토대로 마을과 협의해 조정·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강민규 담당은 "행복택시 운행에 대해 시내버스가 미운행되거나 버스운행 횟수가 적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 농촌마을에 대해서도 마을과 협의해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 선납하면 '10% 감면'

서산시, 3·9월 연 2회 납부… 경유 차량 소유한 시민 해당

서산시가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1년치를 선납하면 1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유 차량을 소유한 시민이 해당된다.

선납 할인은 연 2회(3월, 9월)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청자에 한해 연 1회(3월)에 선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청 환경생태과(☎660-2331)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선납 신청하면 3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발급받게 된다.

납부는 고지서뿐만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전국 모든 은행, 공과금 수납기, ARS(1899-0019),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선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한기자

서산시 사격팀 금빛 총성 '구슬 땀'

서산시 직장체육 사격팀(감독 박신영)이 오는 8월 열리는 창원세계사격선수권 대회 등에 대비해 일찌감치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시 사격팀은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세계 최고의 총기 및 실탄회사가 소재한 독일 슈트트그라프를 방문해 사격장비 사거리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번 사거리 테스트는 우수 실업팀과 선수 육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서산시 사격팀이 선정되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이뤄졌다.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사격은 적정 총기로의 교정 및 최적의 실탄을 선정하는 장비 사거리 테스트가 필수적이다.

시 사격팀은 5일간 일정으로 실탄 제조를 하는 일리사에서 사격장비 이상 유무와 사거리 테스트를 통해 선수 개개인에 맞는 적정 실탄을 선정했다.

이상이 발견된 총기는 세계 최고의 총기 제조사로 손꼽히는 발터사로부터 무상 수리를 받았다.

서산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 중인 발터사는 선수들에게 최신 개발 총기의 테스트 실사기회를 제공하고, 서산시에는 공기권총과 화약권총 2정을 기증하기로 했다.

서산=김정한 기자

고등학교 진학정보 조기 제공 등 5건 가결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 개최

보령시는 지난 27일 오전 보령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어린이·청소년의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동의 권리신장과 참여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1대 보령시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발대한 가운데 처음 열린 것으로, 1부 개회 및 경과보고, 2부 개의 선포 및 의사보고, 의안 상정,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거수 표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신다은 의원의 고등학교 진학정보 조기 제공, 김지호 의원의 불결한 학교화장실 환경개선, 복지안전위원회 최민규 의원의 학교 인근 인도의 불법주차 근절, 아동권리위원회 황신혜 의원의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김석환 의원의 교내공사는 학생기준으로 안전·청결하게 관리 등 5개의 의안이었다.

특히, 1시간 여에 걸친 제안 설명과 열띤 토론을 거쳐 5건의 안건을 모두 찬성 의결했으며, 가결된 안건들은 관련 부서 또는 기관, 학교에 통보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신다은 의장은 "첫 본회의 임에도 다양한 의안이 제안되는 등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별 정책 모니터링으로 우리 고장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면서 올바른 정책 수립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미래가 참 밝다고 느꼈다"며, "의정 활동이라는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큰 일꾼으로 성장해 주기를 부탁드리며, 높은 포부와 꿈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을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today.com

주문형 대여 프로그램 운영

보고 싶은 책이 생겨서 부푼 기대를 안고 도서관에 갔는데, 책이 없다면 누구나 실망스럽다. 이럴 땐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기능이다.

금산군립도서관(인삼고을, 기적, 추부, 진산도서관)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리브로피아)을 이용하거나 직접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1월 31일자로 공포되는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금산군립도서관은 다음 자료를 제외하고는 희망도서 신청을 적극 반영하여 도서를 구입할 예정이다.

희망도서 신청 제외 자료는 연속간행물(신문,잡지), 무협지, 문제집(수험서), 참고서, 우량학습만화를 제외한 만화, 로맨스 소설, 전집류, 고가도서, 기타 도서관 장서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이다.

군 관계자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에 열람이 가능한 '희망도서 신청' 제도에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우/리/동/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금산군,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0까지 접수

금산군은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제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를 통해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논농업과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ha당 107만6000원, 이밖의 농지는 ha당 80만7000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밭농업 직불금의 경우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50만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쌀소득보전 직불금과 같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제원면 등 8개면이 해당되며, 농지는 ha당 60만원, 초지는 ha당 35만원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0까지며, 논 이모작 직불금의 경우 2월 1일부터 오는 3월 9일 까지다.

그 외 직불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 문의하면 된다.

금산=주연기 기자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사업

공주시, 2월 5~7일까지 신청… 최대 165만원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사업을 실시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공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환경자원과로 제출하면 되며,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부터 우선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1/4분기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65만원(최초 등록이 오래될수록 지원하는 보조금액이 낮음)까지 지원하게 된다.

공주=정상범 기자

보령시 제설작업 최첨단시스템 도입

제설 취약 구간에 최첨단 자동염수살수시스템 설치 운영
모니터 통한 도로 상황 파악·신속한 제설작업 가능

보령시가 가파른 도로 경사로 인해 상습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제설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살수시스템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염수살수시스템은 도로에 염수를 분사할 수 있는 노즐을 매립하고 염수용액을 저장한 탱크를 설치해 제설시 구간 도로상황을 CCTV로 확인한 후 원격으로 제설 용액인 염수를 분사하는 최첨단 장치이다.

시는 지난해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명천동 성주터널 앞 국도40호 도로 600m구간과 신흑동 대천항 고갯길 국도36호 도로 300m 구간에 염수 분사노즐 67개와 염수용액 저장탱크(총용량 30톤), CCTV 등을 갖춘 자동염수살수시스템을 설치해 가동해 오고 있다.

그동안 대상 구간은 눈이 조금만 내려도 도로의 경사도가 심해 교통체증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올해 잦은 폭설에도 최첨단 제설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 "앞으로 고갯길 등 다른 제설 취약지역에도 자동염수살수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신속한 제설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 해피시스터즈 (SBS 오전 8시20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성필이 못마땅한 화영. 성필을 설득하기 위해 혜정의 족발집에 모든 식구들을 불러모은다. 화영은 선물을 건네며 성필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지만 성필은 여전히 화영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성필에게 화가 난 화영은 온 가족이 놀랄만한 폭탄선언을 하는데…

▲ 꽃피어라 달순아 (KBS2 오전 9시00분)

달순(홍아름)이 태성(임호)의 집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한 일은 태성과 홍주(윤다영)와 달례(유지연)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다. 나까무라(백재진)은 한수(김진서)를 꾀어내기 위한 계략을 짜고, 달순네 식구들은 달순이 태성의 딸이라고 알게 되는데..

▲ 전생에 웬수들 (MBC 오후 7시 15분)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에요.

전치 5주가 나온 태평(한진희). 나라(최수린)는 이를 빌미로 고야(최윤영)와의 소송에서 이겼다고 기뻐하는데...

케이블 명화

▲ 루시드 드림 (OCN 오후 2시30분)

영화 <루시드 드림>은 한국영화 최초로 '스스로 자각한 채 꿈을 꾸는 현상'인 '루시드 드림'을 소재로 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흔히 '자각몽'이라 알려진 '루시드 드림'은 꿈을 꾸는 중에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거나, 처음부터 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혹은 애초에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컨트롤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국내 최초 '루시드 드림' 영화화!

상상 속의 꿈이 스크린 위로 새롭게 펼쳐진다!

범인도

단서도

오직 꿈 속에 있다!

대기업 비리 고발 전문 기자 대호(고수)는 3년 전 계획적으로 납치된 아들을 찾기 위해 루시드 드림'을 이용, 과거의 기억으로 가 범인의 단서를 추적한다. 오른팔에 문신을 한 남자, 사진을 찍던 수상한 남자, 꿈마다 등장하는 의문의 인물까지! 베테랑 형사 방섭(설경구)과 친구인 정신과 의사 소현(강혜정)의 도움으로 마침내 대호는 모든 단서가 지목하는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되는데...

▲ 월드워 Z (채널CGV 오후 8시10분)

전 세계 이상 기류… 거대한 습격이 시작된다!

의문의 항공기 습격, 국가별 입국 전면 통제, 국경선을 둘러싼 높은 벽, 세계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체불명 존재들의 무차별적 공격으로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인류의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 제리

군인 출신으로 전시 경험이 풍부하고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UN 소속 조사관 제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가족들과 탈출하는데 성공하고

이제껏 본적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 앞에 대재난에 맞설 최후의 적임자로 지목된다

생존률 제로, 최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마침내 제리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대한 정체들과 직면하게 되고,

그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필사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과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인류 최후의 대재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케이블 & 위성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060-398-3355

영화 · 오락

◈ OCN
6:10 탐정 홍길동:사라진 마을
8:3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1
11:30 애간장
12:40 쿵푸팬더 2
14:30 루시드 드림
16:40 프리스트(2011)
18:30 앤트맨
21:00 애간장
22:10 나쁜 녀석들:악의 도시

◈ 채널 CGV
3:00 스트레이트 아웃 오브 컴턴
5:40 나는전설이다
7:30 퀸카로살아남는 법
9:30 스타트렉: 다크니스
12:00 빅 히어로
14:20 헬프
17:20 위대한 개츠비
20:10 월드 워 Z
22:30 프로메테우스

◈ Mnet
7:50 M morning
8:50 M COUNTDOWN
10:30 잘봐줘 JBJ
11:30 지금 꼭 들어야 할 MUSIC X CURATION
12:10 고등래퍼
13:30 MPD Music Talk (SNS/메신저)
14:30 WANNA ONE GO: ZERO BASE
16:0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17:30 Daily Music Talk (SMS)
18:30 SURVIVAL MOMOLAND를 찾아서
19:30 고등래퍼
20:50 Live on M (SMS)
21:5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5
23:20 M COUNTDOWN

스포츠 · 레져

◈ MBC스포츠플러스
10: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스키, 스노우보드 하이라이트
12:00 모두투어 프로야구선수 GOLF in GUAM
13:00 <당구스페셜> 2017 나레 호스세계 주니어 선수권8강
14:00 제9회 전국생활체육 대 장사씨름대회
16:00 2017 알마티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 SBS 스포츠
9:00 17-18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대한민국 메달 모음
11:00 2017 LG U+컵 3쿠션 마스터스
12:50 17-18 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한민국 금메달리스트
14:45 손흥민 골경기 모음
15:00 2012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17:00 17-18 도드람 V리그
21:00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쇼트트랙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 온스타일
6:00 런드리데이
7:00 런드리데이
8:00 아담의 팩트폭격
9:40 서울 메이트
11:00 뇌섹시대 문제적남자
12:30 내 귀에 캔디
15:10 내 귀에 캔디
16:30 내 귀에 캔디
17:50 내 귀에 캔디
19:10 내 귀에 캔디
20:20 아담의 팩트폭격
21:10 아담의 팩트폭격
22:00 원나잇푸드트립:먹방레이스

뉴스 · 다큐

◈ YTN
8:00 이슈 오늘
10:00 뉴스타워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19:30 신율의 시사탕탕
21:00 뉴스21
22:00 김선영의 뉴스나이트

◈ 한국경제TV
7: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증시 830
10:00 증시 라인10
12:0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라인 13
15:40 부자 국민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 N
17:00 성공예감 부동산 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 현장
19:00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사구팔구
21:30 대부천국

◈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TV 동물농장
12:15 순간포착! 위험한 동물들 (2)
12:45 <익스트림 애니멀> 가장 뛰어난 탈출의 귀재 TOP 10
13:45 신비로운 세계 보르네오
14:45 <세계 테마 기행>낭만 알프스 기행, 스위스 - 1부 / 2부
16:15 TV 동물농장
18:30 <세계 테마 기행>낭만 알프스 기행, 스위스 - 3부 / 4부
20:00 <사상 최악의 참사> 나가사키 원폭

음악 · 애니

◈ MBC 뮤직
7:4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9:10 주간 아이돌
10:10 나 혼자 산다
13:30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15:00 순위의 재구성
16:30 무한도전
18:00 쇼 챔피언 비하인드
19:00 주간 아이돌
20:00 나 혼자 산다

◈ 애니맥스
6:00 바이클론즈 5
7:00 아울은 너무 이상해
8:00 포켓몬스터 썬&문
9:00 레인보우 루비
10: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1:00 유후와 친구들3
12:00 터닝메카드 W 시즌2
13:00 명탐정코난 시즌3
14: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part2
15:00 소피루비 part2
16:00 레인보우 루비
17:00 헬로 카봇5

◈ JEI 재능방송
6:00 고고다이노 시즌2
7:00 이야기배달부 동개비
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9:00 파워캐치 원다 part2
10:00 뽀롱뽀롱 뽀로로5
11:00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3
12:00 라바 시즌3
13: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4:00 유희왕ARC-V
15:00 플레이징 틴스5 part2
16:00 치링치링 시크릿 쥬쥬 11기
17:00 안녕! 보노보노
18: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MBC 220-2348~9▶TJB 281-1101▶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월요기획 11:50 UHD 한식의 마음 12:00 KBS 뉴스12 12:30 이웃집 찰스 1:00 평창동계올림픽 특집다큐 3피리어드, 평창 1:50 평창동계올림픽 G-100 특집다큐 영웅, 국가대표 2:40 평창패럴림픽G-100특집 불꽃처럼 뜨겁게 3:30 행복한 지도 4:00 4시 뉴스집중 5:00 KBS 뉴스5 5:10 동물의 세계 5: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평창 6:00 평창동계올림픽 G-10 특별생방송 하나된 열정 하나된세계 8:25 미워도 사랑해 9:00 KBS 뉴스 9 9:40 G-10 특집다큐 오케이 평창, 웰컴대한민국 10:40 KBS 뉴스라인 11:05 세계건강기행 11:20 해외걸작 드라마 컬렉션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아침이 좋다 8: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9:00 TV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라디오 로맨스 12:05 생생정보 스페셜 1:10 1대 100 2:10 생활의 발견 3: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30 TV 유치원 4:00 여유만만 5:00 영상앨범 산 5:30 제보자들 6:20 2TV 저녁 생생정보 7:50 내 남자의 비밀 8:30 글로벌 24시 8:55 1대 100 10:00 라디오 로맨스 11:10 철부지브로망스-절찬 상영중	7:00 MBC 뉴스투데이 7:20 오늘 플러스 7:50 역류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12:00 12 MBC 뉴스 12:20 TV속의 TV 1:2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 교실 2:05 프리파라3 2:45 헬로키즈 놀라운 자연이야기2 3:15 MBC 네트워크 특선 4:00 앙코르 MBC 스페셜 5:00 5 MBC 뉴스 5: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30 전생에 웬수들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전생에 웬수들 7:55 MBC 뉴스데스크 8:5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10: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11:10 PD수첩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6:00 모닝와이드 7:30 모닝와이드 8:30 해피시스터즈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25 SBS 생활경제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SBS 12뉴스 12:50 불타는 청춘 2:00 뉴스브리핑 4:00 접속! 무비월드 5:00 SBS 오뉴스 6:00 영재발굴단 7:00 SBS 8뉴스 7:50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10:00 의문의 일승 11:10 불타는 청춘	6:0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6:20 리쉬아요가 6:30 은혜로운 말씀 7:30 시청자 뉴스 7:50 충청남도 영상소식 8:00 뉴스와이드 9:00 메디컬 인 9:30 주정민의 스페셜토크 10:00 김회영의 이슈 앤 이슈 11:00 다이어트 미 12:00 굿뉴스 12:50 시청자 뉴스 1:20 리쉬아요가 1:30 메디컬 인 2:00 달팽이가 사랑할때 2:50 김경란 교수의 부모교육 3:00 굿뉴스 4:00 행복비나리 5:00 가고보고 먹고 6:00 CMB 뉴스와이드 6:50 시청자 뉴스 7:20 리쉬아요가 7:30 건강플러스 8:00 김영진의 집대성 9:00 뉴스와이드 9:50 리쉬아요가 10:00 CMB 집중토론 11:30 문학의 향기	6:00 한국기행 6:20 세계테마기행 7:00 레이디 버그 7:30 로보카 폴리 7:45 꼬마버스 타요 8:00 딩 동댕 유치원 8:30 엄마 카투리 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9:00 방귀대장 뿡뿡이 9:30 이얍! 스페이스 정글 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 테마 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다큐 12:40 지식채널 e 13:35 뷰티풀 코리아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4:20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상자 16:15 방귀대장 뿡뿡이 16:45 딩 동댕 유치원1 17:05 딩 동댕 유치원2 17:15 엄마 까투리 17:30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1 18:05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18:20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2 18:25 호기심 나라 오키도 18:40 생방송 톡! 톡!보니 하니3 18:45 신통방통 공룡슈퍼 18:55 생방송 톡!톡!보니 하니4 19:00 소피 루비 19:30 EBS 뉴스 19:50 극한 직업 20:40 다큐 오늘

대전역서 즐기는 맥키스오페라 '뻔뻔한 클래식' 무료공연 연장

1월부터 시작된 매주 토요일 무료상설공연… 다음달 10일까지 2회 공연 연장

충청권 주류 대표기업 맥키스컴퍼니가 대전역에서 진행하는 맥키스오페라 '뻔뻔(funfun)한 클래식' 무료공연을 2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펼쳐진 맥키스오페라 '뻔뻔(funfun)한 클래식'이 대전역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설 연휴 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했다.

대전역을 방문하는 열차 이용객은 물론 입소문을 듣고 공연관람을 오는 사람들이 매주 현장집계로 평균 2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어 덩달아 대전 원도심까지 활기를 띄고 있다. 계족산 황톳길,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지하철역, 세종 호수공원 등 지역 곳곳을 넘어 바다 건너 섬까지 일상적인 삶의 터전에서 펼쳐지는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이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기 때문이다.

맥키스오페라 '뻔뻔(funfun)한 클래식'은 소프라노, 테너, 바리톤, 피아노 등 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클래식에 뮤지컬, 연극, 개그 요소를 섞어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즐기는 공연이다. 3代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충청권 문화소외 지역과 계층을 찾아가 연간 130여회 무료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 "맥키스오페라단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 지역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으로 앞으로도 문화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맥키스오페라 '뻔뻔한 클래식'은 대전역 공연이 끝나면 대전지역 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음악회와 계족산 숲속음악회, 찾아가는 힐링음악회 등 문화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2018 그랜드시즌 댄스 컬렉션

국립발레단 '안나 카레니나'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안나 카레니나'가 발레로 펼쳐진다.

취리히 발레의 예술감독인 독일 출신 안무가 크리스티안 슈푹에 의해 2014년 초연된 작품이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문화올림픽 프로그램으로 국립발레단의 강수진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연이 2월 2일 오후 7시 30분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국내 및 아시아 초연으로 전석매진을 기록한 화제의 신작인 '안나 카레니나'는 무려 1,200페이지에 달하는 원작의 방대한 스토리를 과감하게 압축한 슈푹에 의해 더욱 강렬한 눈빛과 애절한 몸짓을 가진 여주인공 '안나'를 만들어냈고, 관객들에게 짧은 시간에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고 안나의 삶을 들여다보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매는 대전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djac.or.kr)나 아르스노바(www.arsnova.co.kr)에서 가능하다.

이영호기자

자동차 종합 정비공장 에스더블유기업(주) SW
대표이사 안 경 호
Tel. 043-528-1801 / Fax. 043-528-1833
Mobile. 011-429-6377 / e-mail. kyungho0710@nate.com
www.sw-motors.com

MSL 레저용품 전문점 명성레포츠
스키 · 스노보드 · 자이글 · MTB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보이보드 · 전문화 · 골프용품
專務理事 최 재 종
FAX : 042)472-5883 H·P : 011-406-0660 Website : www.mslsports.co.kr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 한국동서발전(주)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상준)는 29일 10시부터 전 임직원과 한전KPS, 한전산업, ㈜금화, LS 컴퍼니 등 협력사 직원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2018년 첫 '사랑의 헌혈릴레이' 행사를 실시했다.

한밭대 학생들, 한파도 녹이는 따뜻한 벽화봉사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는 지난 1월 22일(월)부터 1월 26일(금)까지 4박 5일 동안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장승마을 일원에서 '벽화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협 아산시지부,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 NH농협은행아산시지부(지부장 임성동)는 29일 영업점 회의실에서 2018년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아산시지부 직원은 이날 결의를 통해 2018년 종합업적 1위 달성과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동양유치원, 동양예술제 행사 '성료' 동양유치원은 지난 18일 중구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어린이들이 사랑과 재롱을 담은 동양예술제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예술제에는 동양유치원 아이들을 포함한 선생님과 학부형, 가족, 친지들이 모인 흥겨운 행사였다.

청양문화원, 동계문화학교 수료식 · 발표회 개최 청양문화원(원장 이진우)은 지난 26일 겨울 방학을 맞아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꿈과 감성을 키우는 창의 · 인성교육프로그램 동계문화학교의 수료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본부,워킹우먼 간담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6일 본부 회의실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워킹우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을식 본부장 및 40여명의 여직원들이 참석했다.

대전대 LINC+사업단, 대학과 가족회사간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환경기술협의회' 발족

대전대학교(총장 이종서)는 29일 대학 혜화문화관 컨벤션홀에서 LINC+사업단(단장 김선태 교수)내 글로벌환경기술협의회를 발족했다.

환경공학과 교수들을 비롯해 기업체 관계자와 대학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학과 가족회사간의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09년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산학연 인터쉽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가족회사를 유치해온 환경공학과는 매년 가족회사 대표들과의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산학협력을 이어왔다.

이에 금일 50여 개의 가족회사와 함께 글로벌환경기술협의회를 발족한 환경공학과는 향후 리빙랩 및 적정기술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NGO를 포함,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업체의 경우 산학협의회의 구성을 바탕으로 기업체간의 정보교류와 산학공동연구과제, 기술 및 경영지도, 해외진출 상담 등을 통해 기업체의 경영활성화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의회의 초대회장에는 두현이엔씨의 서정식 대표가, 부회장은 부강테크 오선용 대표, 총무에는 경우크린텍의 김규형 이사 등이 맡았으며, 특히 이날 행사에는 대학 자매대학인 중국 북경건축대의 임상호 교수가 특강자로 나서 '도전받는 중국시장'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관교수이기도 한 환경공학과 임봉수 교수는 "이번 산학협력협의회를 통해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취업과 현장업무 경험 및 창의사고력의 증진 등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가족회사들은 산학협력, 해외진출 등의 안목을 갖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대전시 김용락 주무관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 발간

대전광역시 세정과에 근무하는 김용락<사진> 주무관이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펴냈다.

김용락 주무관은 2012년 서구청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편람'을 편찬한 바 있다.

김 주무관은 그동안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고, 판례 및 해석 등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에 '지방세징수법 실무해설'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발간된 책자는 총 1,100여 쪽의 분량으로 징수업무 담당자들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제1조부터 제107조 각 조항별로, 조문, 기본통칙, 의의 및 해설, 판례와 유권해석 등의 순서로 배치하였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능화된 사해행위와 채무자 회생절차, 공탁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해설했다.

김 주무관은"최선을 다해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려 했다"며 "지방세징수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 발간한 만큼 징수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영호기자

㈜신흥이앤씨, 탕정면에 후원금 기탁

㈜신흥이앤씨(대표이사 최병석) 경영지원부(과장 정낙무)가 26일 탕정면을 방문해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287,100원은 ㈜신흥이앤씨 직원들이 탁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2017년부터 자발적으로 모은 것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보탬이 되도록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석 대표이사는 "어려운 가정에 희망의 씨앗이 되어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의 손길을 모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유종희 면장은 "매년 잊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사랑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신흥이앤씨 직원들이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하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제10회 메디컬 드림캠프' 성료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는 지난 28일 대전세종지역 고등학생 대상 의사 직업 체험행사로 제10회 Medical Dream Camp(이하 '메디컬 드림캠프')를 개최했다. 적십자 메디컬드림캠프는 닥터스멘토 적십자 의사봉사회에 소속된 현직 의사들이 각 진료과별로 실습을 학생들과 함께했다.

이날 캠프에서는 닥터스멘토 적십자 의사봉사회 소속 의사 10명과, 의사를 꿈꾸는 고등학생 60여명이 함께 실습에 참여했다.

정상범기자

대덕대 '정밀기계공학과' 2017년도 과정평가형자격 시험 응시자 전원 기계설계산업기사 취득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학과장 이태근 교수)에서 교육 · 훈련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 시험에서 응시자전원이 기계설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태안 천리포수목원 '숲해설가' 모집

숲과 해안의 가치 해설 · 숲 체험 활동 이끌어갈 숲해설가

태안군 소원면에 위치한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에서 숲과 해안의 가치를 해설하고 숲 체험 활동을 이끌어갈 숲해설가 전문과정 제6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이고 정원은 30명이다. 교육은 3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이론과 현장실습 교육을 받게 되며 산림교육론, 산림과 생태계, 커뮤니케이션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참가 신청은 천리포수목원 홈페이지(www.chollipo.org)에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방문,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672-9986)로 문의하면 된다.

천리포수목원은 2013년에 충남에서는 처음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매년 숲해설가를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태안=김정한기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근로자건강센터

학교급식조리종사자 힐링 연수 지원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운영하는 대전근로자건강센터는 충북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조리종사자 힐링 연수를 실시했다.

대전근로자건강센터는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힐링 건강프로그램을 충북학생해양수련원에서 지난 23일부터 1박 2일에 거쳐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전문의와 함께하는 '내 건강 바로알기',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테이핑 요법 실습,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교육 등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다.

대전근로자건강센터는 매년 충북교육청과 함께 힐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장균 센터장은 "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재해예방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칠갑산 정기 받아 마을 안녕을…대치면 산악회 시산제

청양군 대치면 산악회(회장 윤순기)는 지난 28일 칠갑산 장승공원에서 주민의 평안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올렸다.

자연과 산을 사랑하고 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대치면 산악회는 매년 칠갑산의 정기를 받아 한해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고자 시산제를 지내고 있다.

시산제에 참여한 회원들은 화합과 안전산행은 물론 칠갑산을 등반하는 모든 등산객들의 무사고를 기원하고 대치면민 모두의 무사안녕을 빌었다.

이날 회원들은 칠갑산 정상을 올라 삼형제봉을 경유하여 칠갑산 장승공원으로 하산하는 코스를 등반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인 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속 · 부설기관장

▲박붕준 신문방송국주간

▲박노혁 창대체육관장

◇계열부장

▲ 장대원 뷰티디자인계열 계열부장

◇학과장

▲ 김진용 컴퓨터공학&그래픽과학과장

▲서성탁 도시건설과 학과장

▲ 박노혁 스포츠건강관리과 학과장

▲강재선 애완동물과 학과장

▲박지영 피부보건과 학과장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www.daejeontoday.com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기 고

선진국다운 복지를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경제성장률 3%대 유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는 프랑스, 영국, 일본 등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삶의 질에 있어 선진국 수준이라 하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제연합(UN)이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5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멕시코에 이어 최장 근로시간 국가이자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동안 '성장을 우선시하고 복지는 성장 이후에 따르는 것'이라고 본 국가발전전략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지 못했다. 갑을관계라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지탱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잃고, 중소사업자들이 희망을 접고, 서민들이 좌절하게 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에서도 기존의 성장 우선 경제발전전략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즉, 분배와 성장 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개념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인데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모습이다.

물론 이를 달성하는 건 쉽지는 않다. 고령화와 함께 건강수명도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령인구가 늘고 있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변화로 인해 일자리의 종류도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활발해져 대규모 고용이 사라지고 직장 이동이 많아지면서 취업과 실업의 반복이 잦아진다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일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 받으며 재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모습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과 약속했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선진국다운 복지를 위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이 포용의 전제인데 '같이 어울려 살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장애인, 노인, 보호자 없는 아동 등 소외계층 상당수는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차별적인 일상을 살아왔다.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연계해 주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국도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제도를 갖추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한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거동이 불편한 치매 노인의 가정에 돌봄과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것,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애주는 것, 정신질환자가 공공후견인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지역사회 중심 보호(Community Care)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서로를 '포용'할 수 있어야 선진국다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 고

세바퀴 함께 굴러야 청년을 태울 수 있다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2018년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인상액(1060원)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으로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 가계소득을 올려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에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폭풍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고용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다면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긴급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하여 3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확대될 것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인건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일수록 구인난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기업이 받는 충격을 고려하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근로환경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갈등하기 보다는, 대의를 위해 지혜를 모아 균형을 맞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3개의 바퀴로 굴러가서 안정과 균형이 있는 세발자전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는 세발자전거의 바퀴 3개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3개의 축이다.

정부는 세발자전거의 앞바퀴처럼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2개의 뒷바퀴처럼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3개의 바퀴가 균형점을 찾을 때 노사가 만족하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고, 청년에게도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기 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기준 강화

정 지 현
천안서북경찰서 성정지구대 순경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음주운전자의 절반 이상은 음주운전 적발 후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고 한다.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경찰에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 그런 생각조차 접어야겠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음주운전 관련 법적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안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2만 917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9769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강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2018년 시행)

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인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 체질·체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0㎏인 성인 남성이 소주 2~3잔을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 땐 0.03%가 나온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술 한 잔 정도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법안 제안사유를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밤에 술 먹고 아침에 단속하면 전날 마신 사람들은 0.03% 그냥 나올 듯" 이라는 반발도 있었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며 "사면, 감면 제도 등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택시시가가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바로 자격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2018년 시행)

택시기사들에게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고조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택시기사들은 업무 중 음주운전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이 되면 즉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제도를 말한다. 음주운전 앞에 '생계'는 더 이상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③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부착제 도입(2020년 시행)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시동잠금장치 부착도 가능해진다. 이는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측정이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에서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상습 음주운전자는 2020년까지 시동을 걸기 전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가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인지하고 술 마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길 바란다.

사 설

바람직한 공인인증서 폐지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니 기대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도 여러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제도는 절차의 까다로움과 번거로움 등으로 중장년층에게는 전자시대 적응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간편하고 보안성이 강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기대한다.

'가뭄' 근본 대책 필요하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막고자 정부가 저수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농촌용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니 기대가 크다.

행정안전부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기상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상청은 167개 행정구역별 가뭄 현황 정보에 더해 117개 유역별 가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에 힘을 쏟는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물줄기를 연결해 새로운 농촌용수 공급처를 개발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10년에 한 번 오는 규모의 가뭄에도 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웅덩이(둠벙)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가뭄 등 재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물을 많이 쓰는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수율이 낮은 보령·밀양·주암·부안·합천 댐의 저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한다. 또 물이 부족한 지역에는 해수 담수화나 광역상수도 인근 지역 공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노후한 지방 상수도 시설을 최신 시설로 개량하고, 광주 매내미 마을·인천 소청도 등 가뭄이 잦은 도서·산간 지역은 관정 개발과 상수도 확충에 나선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뭄을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구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개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내 132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동대표 3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력감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경비원 및 청소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고용 안정화 우수 단지에 대한 가점 반영에 관해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아파트단지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개정절차 및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검토와 집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올해 주민화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1억 원), 주 관통 도로 보수지원(1억 원), 에너지 절약 지원(1억 2000만 원),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1억 30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8000만 원) 등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전문가 기술자문 운영, 관리비 진단 및 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그동안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등 공모사업을 통해 159개 단지 12억 5000천여만 원 지원 ▲분쟁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59회 약 3,500명) ▲관리비 진단 등 전문가 기술지원으로 145개 단지에서 35억 5천여만 원의 관리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투명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大田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바른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편집인	김 현 정	회 장	김 성 구	논설위원	조 정 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 처 :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일정
2월 9일~2월 25일(17일)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